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홀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대통령 탄핵안 제출... 여당, 반대 당론 의결

워싱턴 DMV지역 주택판매 10% 증가



전국민중행동 등의 주최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퇴진” 구호 등을 외치고 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남영동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다. [뉴스1]

야6당 191명 발의, 김용현 국방 탄핵안도 제출
국무위원·대통령실 수석 이상 전원 사의 표명
한동훈 “대통령 탈당 요구, 총리·비서실장에 전달”
대통령 ‘계엄 사과·임기 유지’ 오늘 입장 밝힐듯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야 6당은 즉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탄핵안을 5일 0시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하도록 돼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탄핵안 접수 직

후 기자들과 만나 “5일 0시1분에 본회의에 보고하면 6일 0시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은 사과하되, 임기 수행 의지를 강조할 대국민담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폭거를 하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국회에 투입된 여야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계엄군 ‘체포조’에 대해 항의했으나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그랬다면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위반이니 그러지 않았겠냐”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한 대표가 요구했던 ‘해임’을 시키지 않고 ‘자진 사임’의 형태로 정리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손국희·김민정·성지원 기자
▶▶ 2면 ‘계엄령’으로 이어집니다

워싱턴 지역 주택 매매시장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일부 지역의 경우 두 자릿수 넘는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북버지니아부동산중개인연합회(NVAR)의 10월 주택판매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주택 클로징 판매 건수가 1327채로 전년동월 대비 10.2% 증가했다. 이같은 판매 증가율은 전국 평균인 2.9%보다 세배 이상 높은 것이다.
북버지니아 지역의 10월 잠정판매 건수도 전년동월 대비 11.6% 증가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12.7%, 폴스 처치 시티는 22.2%, 알링턴 카운티는 17.5% 증가했다. 중간주택판매가격은 71만5천달러, 평균판매가격은 84만2808달러로 각각 9.7%, 6.7% 상승했다. 이 또한 전국 평균 상승률 5%와 4%를 훨씬 능가한다.
페어팩스 카운티 중간주택판매가격은 72만5천달러로 9.9%, 폴스 처치 시티는 137만5천달러로 27.1% 상승했다. 주택판매 호조로 재고 주택 고갈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김옥채 기자
▶▶ 5면 ‘주택 판매’로 이어집니다

계엄선포 4시간전 김용현 국방장관 대통령과 만났다

‘155분 천하’로 사실상 무위에 그친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사태 배경을 놓고 관가에선 그간 의문을 샀던 윤 정부의 안보 관련 인사가 이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4개월 전 대북 강경·충성과 중심으로 외교안보 라인을 다시 꾸렸는데, 이번 계엄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전면 배치가 핵심이었다.

실제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해당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는 계엄법상 형식상 요건(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을 갖추는 측면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평소 자신의 모든 말에 “맞습니다”를 외쳐 온 김 장관과 가장 긴요하게 계엄을 논의했을 것이라 추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심야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다

수 국무위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음에도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강행한 배경에도 충성파인 김 장관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기 몇 시간 전인 오후 6시쯤 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대통령실에 들어갔다.
박태인·이유정 기자
▶▶ 14면 ‘김용현’으로 이어집니다



연방의회 앞 성탄트리 점등 3일 연방의사당 앞 80피트 높이 성탄 트리에 불이 켜졌다. 트리로 쓰인 나무는 알래스카 통가스국립공원의 가문비나무다. [로이터]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용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재입
순금 아기 물받이달피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LEXUS
DECEMBER TO REMEMBER
SALES EVENT
1월 2일 종료

이것이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죠
착한 사람에게는 더 멋진 보상이 따라옵니다. December to Remember Sales Event에서 여러분이 받을 보상을 찾아보세요. 오퍼는 지금부터 1월 2일까지, 일부 모델에 제공됩니다. 리본은 옵션입니다.

LEXUS EXPERIENCE AMAZING

©2024 Lexus, a Division of Toyota Motor Sales, U.S.A., Inc.

친한 “특검 받아도 탄핵 막아야”... 친윤 “박근혜대 결과 흑독”

비상계엄 선포 시간대별 상황
※언론 발표 시간 기준



경찰, 국회 정문 통제



국회 담당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계엄군 헬기 국회 착륙



국회 관계자들, 바리케이드 설치

12월 3일	21시30분	21시50분	22시23분	22시28분	22시42분	23시	23시4분	23시25분	23시27분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설득기 시작	방송사들에 ‘긴급 정부 발표가 있으니 중계 연결을 바란다’는 메시지 공유 (대통령실 브리핑룸 입장 불가, 대통령실 22시 넘어서도 불통 상태)	윤 대통령 긴급담화 생중계 시작(약 6분)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민주당,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담화문 전문 언론 배포 23시09분 사전 언론 배포	국회 출입문 폐쇄	계엄사령관에 박인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3시부로 발표

친한·친윤 모두 “탄핵은 절대 안돼” 안철수는 “대통령 물러나야” 표명

‘12·3 계엄 사태’로 위기에 놓인 국민의 힘은 4일 오후 10시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야 6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의원들의 시선은 우선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온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에 쏠렸다. 두 사람은 오후 5시쯤 한덕수 국무총리, 주호영 국회의장, 5선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과 함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1시간30분가량 면담했다.

한 대표는 의총 연단에 올라 “고생 많으시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있으니 며칠 더 같이 고생하자”는 취지로 짧게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당정 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심야 의총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보내는 ‘탄핵 찬성 독려’ 문자 공세에 맞서 굳건한 단일대오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중진 의원은 “탄핵에는 확실히 단일대오로 맞서자는 목소리였다”며 “윤 대통령의 탈당 문제 역시 탄핵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친한·친윤계를 막론하고 “탄핵은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이 대세였

다. 일부 중진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이 몰락했던 ‘박근혜 트라우마’를 거론하며 “당시는 그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국민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 탄핵의 결과는 너무 흑독했다”고 말했다. 친한계 역시 신중했다. “한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에 빠지거나, 보수 진영이 갈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SNS에 “이재명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현 정부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며 “특검을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적었다.

안철수 의원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 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촉구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소수 의견에 가까웠다고 한다. 다만 당내에선 “탄핵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원내지도부가 8표 이탈을 막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다만 한 대표가 제안한 해법 중 하나인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탈당이 급기야가 돼서는 안 된다. 한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친한계 주장과 “정권을 잘 지키는 게 재창출하는 길이다. 대통령이 오죽하면 그랬겠냐”라는 친윤계 반발이 맞섰다. 친한계 6선 조경태 의원은 “탈당 요구에 30% 정도는 찬성하고, 나머지 70%는 반대”가 많다. 상당히 당이 좁 심각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민정·김기정·이창훈 기자

한동훈, 계엄군에 항의하자... 대통령 “포고령 위반이라 그랬을 것”

▶ 1면 ‘대통령’에서 이어집니다

한 대표는 면담이 끝난 뒤 주변에 “대통령이 잘못된 게 없다는 입장인데, 대화에 어떤 진전이 있을 수 있었겠냐”고 토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 또 계엄사령관·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야 6당은 이날 오후 2시40분 소속 의원 191명 공동 명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탄핵안에서 이들은 “윤 대통령은 본인 과 배우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 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 자 부하 김 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해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 질서 중단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 미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위반 ▶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언론·출판

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위반 ▶계엄법 위반 ▶형법상 내란미수 등을 들었다.

야 6당은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하고 계엄권 발동에 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기구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국회 활동의 전면 금지라는 초유의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는 등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45분쯤 김용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의안과에 접수했다. 김 장관은 이후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구백 의원을 상환실장으로 하는 ‘계엄상황실’도 설치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원래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저, 한동훈 대표 3명을 체포하려 왔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10여 명을 체포하려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혼란 속에서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후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을 방문해 한덕

수 국무총리, 대통령실 참모들과 머리를 맞댔다. 한 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다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성’이었다는 해명성 보도에 대해 “계엄은 그렇게 경고성일 수는 없다. 계엄을 그렇게 쓸 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임기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뜻을 모았느냐”는 물음엔 “(그 내용을 전한) 보도가 수정됐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한 대표는 “탈당 요구를 한 게 맞냐”는 질문엔 “탈당 요구를 해야 한다는 건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던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회의할 때 총리와 비서실장에게도 전달드렸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고위 당정대 회의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 한 총리 및 일부 중진과 함께 오후 5시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약 1시간30분 동안 수습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 말미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은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도 윤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손국희·김민정·성지원 기자

워싱턴 날씨 (°F)

☁	6일(금) 37~24	9일(월) 56~47
	7일(토) 42~24	10일(화) 64~45
	8일(일) 53~38	11일(수) 54~33

12월 5일(목) 40~27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오랜 경력으로 성심성의껏 팔고/사고/렌트해 드립니다.



WWW.UMNLOAN.COM

신뢰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14개 주 Lender License를 보유하고 뉴저지와 조지아에 Local Office가 있어 다른 주에 투자 또는 이주시에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2023 TOP 20 PURCHASE LOAN OFFICER IN VIRGINIA
SEUNG YIO
버지니아주 수상



2023 TOP 20 PURCHASE LOAN OFFICER IN MARYLAND
SEUNG YIO
메릴랜드주 수상



2023 TOP 20 PURCHASE LOAN OFFICER IN GEORGIA
SEUNG YIO
조지아주 수상



2023 National TOP 1%
SEUNG YIO
National Top 1% 2018, 2019, 2020, 2021 and 2023 5년 연속 수상

Lender Licensed State (VA, MD, NJ, GA, PA, TN, NC, AL, MI, FL, DE, WV, SC, CA)



대표전화:
703-204-0022 | 703-268-3954



CEO 손여 Sean H Yio
NMLS #: 262952 / M.B.A., MS Finance
NMLS #: 2425871 (회사)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야당 “앞으로 며칠이 역사 바뀌”... 관건은 탄핵가결 200표



계엄군, 국회 진입



이재명·한동훈 대표 악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계엄군, 국회서 철수

12월 4일

0시7분	0시22분	0시45분	0시49분	1시1분	2시1분	4시22분	4시27분	4시30분
계엄군 국회경내 진입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국회 본회의 개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 (야당의원 172명, 국민의힘 찬성 18명)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	우원식 국회의장 “윤 대통령·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내”	합동참모본부, 비상계엄 투입 병력 원소속 부대 복귀	윤 대통령, 생중계 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 군 설치 계엄사령부 해제	정부, 국무회의 열어 ‘계엄 해제안’ 의결 발표

현재정상화·특검·촛불 동시 추진 야당목 현재 재판관 2명 추천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탄핵 가속 pedal을 밟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구성 ▶특검 등 형사처벌▶장의 촛불집회 확산을 동시에 추진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긴장감을 유지하고 향후 정국을 이끌어가자. 앞으로 며칠이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시점”(박성준 원내수석)이라

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미뤄 왔던 헌법재판소 정상화 절차를 밟았다. 헌법재판소 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조항에 대해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6인 심리가 가능해졌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을 재판관 3명 없이 심리해도 되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 때는 재판관 8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오후

마은혁(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연수원 27기) 서울서지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키로 의결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국회 탄핵안 가결부터 현재의 인공까지 석 달가량 걸렸다. 탄핵안 가결에는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소통 여부에 대해 “해야죠”라고 답했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민주당은

가급적 빨리 헌재를 구성하겠다는지만 국회 추천에는 여당 몫(1명)도 있어 인사청문회 등이 신속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 비상시국대회에서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외쳤다.

당 법률국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조승래 원내수석대변인은 “계

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경의 주요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에도 한 명의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당이 재기 불능 상태로 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있을 것”(이재목 한국외대 교수)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계엄 선포와 해제가 심야에 몇 시간 안에 이뤄져 시민들이 위기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 면이 있다”(전직 의원)는 말도 나온다.

심세롬 기자

백악관 “사전협의 없었다”... 한미 핵우산 회의·훈련 연기

미국, 계엄에 불쾌감... 동맹도 타격 사태 보고받은 뒤 “계엄 해제하라”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한 동맹인 미국에도 사전 통보 없이 계엄을 선포하며 미국이 예정됐던 확장억제 강화 관련 회의를 취소하는 등 사실상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가 미 행정부 교체 시기에 한·미 동맹에 부정적 여파를 미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외교력 전반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계엄령이 해제된 뒤 백악관의 첫

입장은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당혹감 섞인 반응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리카 앙골라 방문 중 한국의 계엄령 사태를 보고받았다. 이후 미국은 각급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계엄을 해제하라”는 국회 결의를 준수하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인도·태평양 업무 총괄인 커트 캠벨 부장관도 “중대한 우려 grave concern)를 갖고 한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법치에 부합하는 해결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NCG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이 대북 억지력 강화와 관련해 일군 가장 큰 외교적 성과로 꼽히는데, 바이든 행정부 교체 전 ‘피날레’ 격으로 진행하려던 해당 회의도 취소한 것이다. 미국방부는 연기하는 이유조차 대지 않았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이 계엄령 소식을 접하고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며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경위와 향후 상황 전개에 대해 문의했는데, 제대로 된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으로선 한반도의 소요 사태는 곧 직접적 국가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크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예기치 못한 대응도 고려해야 하고, 이제는 북한과 사실상 조약 동맹을 맺은 러시아가 개입에 나설 가능성까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4일 오후 윤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와 관련해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입장을 냈다.

이번 계엄 사태가 윤석열 정부가 쌓아온 외교적 자산을 상당 부분 훼손했다는 우려도 크다. 곧 들어설 트럼프 2

기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첫인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세계 각국 정상이 트럼프 당선인과 애타투 만나려 시도하고 주요국은 모두 전방위적인 대미 로비와 새로운 네트워크 발굴에 힘을 쏟을 때 한국의 외교만 제로베이스로 돌아가 모든 게 멈춘 격”이라고 지적했다.

박현주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일은 선택 - 오니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2 최신행 X-Ray 완비
3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입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한국 기업 미국 진출시,
미국정부에서 제공하는 Investment incentive process, IRA 법안 관련과 New market tax credit 도와 드립니다.
미국 시장 진출전 지역 정하시기 전에 상담 하셔야 합니다

승경호 추천 매물		
워싱턴 DC 리커 35만불, 2000 SF, 창고있음 렌트 6천불	K- HOT DOG 집 버지니아주 포토맥빌, 25만불 인기 많은 K- HOT DOG 집 한달 1만3천불 순수익, 주인없이 운영중	소시 식당 메릴랜드주 락빌 좋은 자리 5000 SF
Beer & Wine Shop 버지니아주 알링턴 주1만8천불수입, 렌트 \$7200 2400 SF, 조건부임대계약, 35만불	상가 임대수입 DC - 식당입주한 건물 2백6십만불 3000 SF 복층 월 순 수입 \$11,000	상가 임대수입 메릴랜드주 발티모어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
Beer & Wine Shop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주2만불수입, 렌트 \$7200 + Cam 2,300SF,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상가 임대수입 버지니아주 비엔나 상가 8백만불 연순수익 52만불	상가 임대수입 버지니아주 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디씨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 ONE 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탄핵 위기의 윤 대통령, 분권형 책임총리제 결단하길...

아무리 이해해보려 해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150분 계엄 선포'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건 과연 무엇일까. 얻은 게 있거나 한 걸까. 애당초 뭘 노리고 한밤중 계엄령 선포를 전격 발표한 걸까. 야당의 '닥치고 탄핵'과 예산 문턱이 삭감에 열이 받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범죄자 집단 소굴" "내란 획책"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이라니... 비대칭적 논리의 비약이다. 화기에 저지른 실수인가. 아니면 야당의 주장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과 탄핵 국면에 대비해 총안과(김용현 국방, 이삼민 행안부장관 등) 충성파들이 모의한 친위 쿠데타가 진짜로 성공하리라 믿었던 것일까.

느닷없는 계엄 선포도 여차구니없지만, 국회의 해제 요구도 3시간도 안 돼 계엄 선포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던 대통령의 결단은 웃음거리가 됐다. 인터넷 밈글엔 "나라 망신"이란 조롱이 넘친다. 국회 요구가 있으면 즉각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는 헌법 조문도 모르고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다. 평생 검사로 잔뼈가 굵고, 성공 가도를 걸아준 법조인생에 대한 자긍심이 특히 높은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이런 대담한 일을 저지르면서 집권 여당을 패싱한 건 또 무슨 배짱이란 말인가. (계엄령 선포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엄령 철폐를 요구할 때 이미 정치적 전선은 허물어졌다.)

"대통령 스스로 탄핵의 강에 발 담기"

어쨌든 한밤중 계엄 소동으로 윤 대통령이 손에 쥔 건 부도 수표뿐이다. 허술한 모험, 무모한 도전에 대한 청구서가 속속 날아들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통령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장관 해임 같은 요구가 표면화하고 있다. 야당은 하야와 탄핵 카드로 공세 수위를 높인다.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법으로 체포해야 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군 병력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려 하자 당직자들이 소화기를 분사하며 입구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4일 "윤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게 보수층 여론이었는데, 어젯밤 일로 건너 오지 못할 탄핵의 강에 발을 담근 꼴이 됐다"고 개탄했다. 탄핵 촛불시위가 불붙을 경우 '박근혜 시준2'로 갈 공산이 크다는 얘기도.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담화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 있다"고 야당을 비난했는데, 그 자신이 독단과 무모함으로 나라를 풍전등화로 몰아넣은 데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그가 두게 될 다음 수는 무엇일까.

적폐청산에 몰두, 개헌 외면한 문 정권

이쯤에서 7년 전 박근혜 탄핵 당시를 복기해보자. 당시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 권한의 남용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헌이 화두가 됐다. 대통령 권력의 분산, 정쟁과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시대를 열자는 여론이 불붙을 이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권력 공백기를 정권 획득의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 촛불 정신

느닷없는 계엄령, 탄핵위기 자초 여당서도 대통령 탈당 요구 나와 '박근혜 탄핵 시준2' 안 되려면 국회와 권한 나누는 개혁해야

을 외면했다.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인적 청산에 몰두하면서 제도 개혁의 골든 타임을 허비했다. 문 정권의 탐욕이 빛은 결과물이 현재의 윤석열-이재명 체제다.

이른바 19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게 중론이다. 직선 대통령제 개헌으로 국민은 환호했지만, 극단적인 정쟁을 중단시킬 중재·조정 제도적 장치 만들지 못해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구조 결함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과도한 권한과 승자독식 구조다. 민심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작동하고 협상과 타협의 정신, 경륜 있는 리더십 등이 완충제 역할을 할 땐 그러저럭 고비를 넘겨왔다. 그러나 정치 경력이 전무한 0선(選) 대통령의 등장과 국회 3분의 2를 장악한 야당의 팬덤 정치가 브레이크 없이 마주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되면서 국정이 작동 불능의 늪

으로 빠져들었다. 이는 사람의 문제인 동시에 제도의 문제다.

헌정회,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전직 국회의원 단체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최근 개헌안(잠정)을 마련,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대철 회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고 미래로, 세계로 우뚝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개헌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헌정회 개헌안의 핵심은 직선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분권을 전제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시종 개헌 소위 간사는 "단임제는 책임 추궁이 어렵고, 제왕적 대통령 아니면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국정 불안정성을 상시 내포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통상적인 행정 집행권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갖는다. 또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게 해 총리(내각)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국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갖게 되면 현재보다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지만 내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를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독일식은 국회가 차기 내각 총리를 먼저 선출해놓고 내각 불신임을 하는 방식이다.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는 방안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지금 같은 여소야대에서 국회-정부가 대립할 때 상원이 중재역을 하도록 해 극한 대결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하원(민의원)은 예산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상원(참의원)은 장관 등 고위 공무원 임용

동의권과 지방 균형발전 관련 정책 심의 권한을 갖는다.

책임총리-책임장관제 시험의 적기

계엄 선포 사태로 분위기를 탄 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탄핵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그러나 응징과 보복의 정치, 탄핵의 일상화는 국정 마비와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지금같이 북핵 위기 등 대외정세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어려울 땐 자칫 대외 신인도와 경쟁력 추락으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위험이 크다. 차분하고 냉정한 제도 개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야당의 탄핵 위협이 아니더라도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요구는 오랜 시대적 과제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탄핵과 개헌 사이의 중간지대는 없을까.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책임총리-책임장관제 시험을 해보면 어떨까.

우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통령이 제출한 복수의 후보 중 국회가 적임자를 정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직하다. 국회의 신임을 통해 뽑힌 총리에겐 상당한 무게가 실릴 것이다. 실질적으로 내각을 총괄할 수 있다. 쟁점 사안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의 토론-타협을 통해 해법을 도출하는 대화 정치를 유도할 수 있다.

또 정쟁에서 벗어나 협상과 타협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총리가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제정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면 명실상부한 내각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각은 책임총리-책임장관이 맡고,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는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개헌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책임총리제의 성공적 실험으로 정쟁의 정치를 끝내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에게 던져진 시대적 과제일지 모른다.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고객들의 밝은 희망을 약속합니다”

프로미스 원뱅크 선 김 행장 VA 지점장들과 본보 내방

프로미스 원뱅크 선 김 행장이 버지니아 애난데일 지점 윤은지 지점장, 센터빌 지점 저스틴 리 지점장과 함께 지난 3일 본보를 내방했다.

뱅크오브 호프 버지니아 지점들을 통합 인수해 지난 10월 새롭게 문 연 프로미스 원뱅크는 그 이름 그대로 “고객들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희망을 주는 은행”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김 행장은 힘주어 말했다.

선 김 행장은 “조지아 둘루스 본사를 중심으로 조지아에 6개 지점, 뉴욕과 텍사스 휴스턴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이번 버지니아 애난데일, 센터빌 지역 지점을 통해 워싱턴 지역에 내디딘 첫 발걸음을 발판으로 동부지역 최대 한 인은행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행장은 “버지니아 지역 한인 여러분들께 인사 드리며, 더욱 친근히 다가갈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로미스 원뱅크는 지난 2008년 조지아 둘루스에 설립돼 총 자산 약 8.5억 달러, 총 예금 약 7억 달러, 순이익 1,050만 달러 및 자본 대비 수익률



(오른쪽부터) 선 김 행장, 윤은지 지점장, 저스틴 리 지점장.

(ROE) 11.3%를 기록하고 있다. 프로미스 원뱅크는 Bauer Financial)로부터 2024년 5스타 등급을 받으며 안정성과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했는데, 이 평가 등급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역량을 나타내며, 고객들이 은행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진다.

프로미스 원뱅크는 소규모 사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상업 대출, 주택 담보 대출, SBA 대출, 개인 저축 계좌 등 폭넓은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뱅킹을 강화해 고객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새단장 이후 시스템 정비와 직원 재교육에 매진했던 프로미스 원뱅크

버지니아 2개 지점은 내년도부터 고객 확충 및 영업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개선된 서비스로 고객들을 찾겠다는 각오다.

센터빌 지점 저스틴 리 지점장은 “버지니아 지역 한인들, 특히 자영업자 여러분의 모든 은행 및 대출 업무를 원스탑 서비스로 제공해 드릴 것”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힘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은지 애난데일 지점장은 “가족같은 마음으로 감동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은행 업무의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맡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세용 기자

워싱턴지역 원로목사회 정기총회

워싱턴지역 원로목사회(회장 김택조 목사)는 지난 3일 애난데일 메시아장로교회(담임목사 한세영)에서 제35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이석해 목사를, 부회장으로 유희태 목사를 각각 선출했다.

34대 부회장을 지낸 이석해 목사가 만장일치로 35대 회장에 추대되었으며, 유희태 목사가 박관준 목사와 경선 끝에 부회장에 당선되었다.

신임 회장 이석해 목사는 “새 임원진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회원들을 섬기겠다”며 당선소감을 전했다. 유희태 부회장은 “회원들의 신뢰에 감사드리며 한해 동안 낮은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들을 섬기며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새 집행부 임원명단도 공개됐다. 총무에 최인환 목사, 회계 박지나 목사, 예배분과 조홍복 목사, 문화분과 한훈 목사, 친교분과에 오봉용 목사가 각각 임명됐다. 감사는 김택조 목사와 임종길 목사가 맡게 됐다. 원로목사회 2024년 회계 보고에 따르면, 총수입은 14,530,10달러, 총지출은 12,174,79달러로, 잔액은 2,355,31달러로 집계됐다.



34대 회장 김택조 목사가 신임회장 이석해 목사에게 협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는 한세영 목사가 ‘여호와께서 인도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한 목사는 “주의 종들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는다”며 “목사되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설교했다. 한 목사는 “주님이 이민목회자로 부르신 종들임에 자부심을 갖고 사역의 길 끝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월례회는 2025년 1월 21일(주일) 오전 11시 메릴랜드 새소망교회(담임목사 안인권)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하나님 영광 노래하는 대형 무대”

창립 30주년 가든교회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 연주회

창립 30주년을 맞은 메릴랜드 콜럼비아 소재 가든교회(한태일 담임목사)가 오는 8일(일) 오후 5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연주회를 연다.

한 해 동안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던 가든교회 측은 이번 공연에서 약 60명의 단원과 15명의 객원 연주자, 그리고 소프라노 김성지, 메조소프라노 김여경, 테너 진철민, 바리톤 유영광 솔리스트들이 함께 나서는 대형 공연을 준비했다.

한태일 목사는 “지난 6개월간 연습에 매진한 공연 단원들은 지난 30여년 동안 인도하신 예베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메시아의 수난, 속죄, 부활, 영생을 노래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면서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가든교회는 오는 15일(일) 오후 5시 2대 남지현 담임목사 위임예배, 28일(토) 오후 7시 30분 미래 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음악회, 29일(일) 오후 5시 은퇴하는 한태일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예배 등을 앞두고 있다.

>문의: 410-461-9620
>장소: 8665 Old Annapolis Rd. Columbia, MD

박세용 기자



>> 1면 '주택 판매'에서 이어집니다

현재 리스팅 주택은 1.4개월 판매분에 그쳐 전국평균 4.2개월 판매분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라이언 맥라틴 NVAR 대표는 “리스팅 주택재고가 매우 부족해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가격 변동 폭도 심해져 페어팩스 카운티 중간주



택판매가격이 알링턴 카운티(65만5천 달러)를 넘어서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욱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풀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퀄리티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라조울) 웨일라노래방
300m 뉴타운홈

미라조울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하이테크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C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B2501870; MD 2501870; NC L-219065; VA MC-7782; TX 2501870; PA 100823; FL MLD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비민주적 행위” “대통령 탄핵 자충수”

한인들, 느닷없는 계엄 비난
“소통 대신 장갑차·군대 동원
80년대 군사정권 망령 보는 듯”
앤디 김·데이브 민 “용납못해”

미주 한인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놀라움과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민 25년차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민현(56·롱비치)씨는 “소통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장갑차와 군인을 국회로 보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80년대 망령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였다”며 “앞으로 정국의 혼란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인 원로들도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위재국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 회장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했던 조국이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닌 것 같다”며 “양식 있는 사람들이 조국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태랑 자유민주동맹미주연합 회장은 “계엄을 선포하고 곧바로 해제할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한국 야당도 독재 같은 행태는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인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토해냈다.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뉴저지)은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기반을 약화하고,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려야 할 시



앤디 김 (가운데)과 데이브 민 (오른쪽)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반대 의견을 허용하고 고무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적을 억압하는 최악의 행위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존 이 LA 시의원(12지구)도 “한국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시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스티브 강 LA시 커미셔너는 “처음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데 이번 사태를 타인종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구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반대 의견을 허용하고 고무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적을 억압하는 최악의 행위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존 이 LA 시의원(12지구)도 “한국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시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스티브 강 LA시 커미셔너는 “처음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데 이번 사태를 타인종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인들 대부분은 대통령 개인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꼬집었다. 캔벤션 부스 제작 회사를 운영중인 앨런 천 대표는 “도대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다”며 “아직도 44년 전 계엄령의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수많은 이들에게 지난 상처만 떠올리게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옥성득 UCLA 교수(한국기독교학)는 “대통령이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며 자충수를 둔 것”이라며 “아무래도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 같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미국 주요신문, “한국 민주주의, 최대 시험 통과”

미국 주요 일간지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결의에 따른 해제 과정에 대한 사실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시험대를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실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진의가 분명치 않은 계엄령 선포를 신속하게 거부하면서 수십 년 만의 최대 시험대를 통과했다”고 썼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결의에 따른 해제는 미국 언론에서도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4일 버지니아주의 한 마트 신문 가판대에 이날자 1면 머릿기사와 사진으로 한국 계엄 사태를 다룬 월스트리트저널(WSJ·왼쪽부터),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이 진열돼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사실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 “중북 반국가 세력 격결”, “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거론했지만 ‘위협’에 대해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면서 “계엄령은 자신의 가라앉고 있는 대통령직을 구하기 위한 무모한 도박의 흔적이 있었다”고 평했다. 사실은 한국의 계엄법에 명시된 언론 통제, 국회에 대한 제한, 거리의 군인 배치 등 조치는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라면서 “그러한 명확한 위협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실은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같은 한국 내 혼란 징후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무모한 군사 행동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염두에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의 위험성과 관련한 일부 날카로운 조언을 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한국인들은 북한에 맞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1980년대에는 독재자의 통치를 끝내기 위해 희생했다”며 “3일의 사건은 민주주

의 문화가 (한국에) 뿌리내렸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한국)에서 일어난 고무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한 여러 ‘위협’을 열거한 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윤 대통령의 요란하고 위험적일 가능성이 큰 (민주주의) 전복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사실은 이어 “다행히도 한국은 이 시험을 견뎌냈고, 민주주의는 온전할 뿐만 아니라 강화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미국인이 미국 내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 시기에 이 사건은 민주주의 제도가 회복력이 있고 자유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보편적이라는 믿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실은 “(미국에서도) 행정부에 책임을 물을 때 입법부가 과도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리더들이 종종 타당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그에 대한 답은 민주주의를 새로운 군사 독재 정권으로 뒤집음으로써 헌법 질서를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썼다. 사실은 “한국 공정은 1987년 학생, 노동자 등의 장기 시위 끝에 종식됐고, 이는 놀라운 ‘피플파워’(민중의 힘)를 보여준 일이었다”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시계를 이전의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였다”며 “다행히도 이번엔 민주주의의 한 사람의 약화 시도보다 더 회복력이 있었고, 피플파워는 또 한번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였다”고 지적했다.



3일 민주진보단체 회원들이 LA총영사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를 열고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윤석열 정권 퇴진” 규탄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남가주 한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촉구했다. 3일 정오 LA총영사관 앞에서 LA민주진보단체연합·재미동포목회자연·미주종교평화협의회는 긴급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인 약 30명은 “헌정 파괴 계엄 선포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 퇴진이 추모다”, “무지·무능·무도한 윤석열을 체포하라” 등 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민주진보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문에서 언급된 헌정질서 짓밟기, 국가기관 교란, 내란 획책,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 붕괴의 괴물이 바로 윤석열 본인임을 선포한다”며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가반역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인 목사 25명이 참여한 재미동포목회자연합동 성명에서 “윤석열 자신이 헌정 쿠데타를 일으킨 역모 세력임

을 만천하에 공포한다”며 “국민의 분노를 계엄령 파위가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이런 오판은 윤석열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패착임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가 참여한 미주종교평화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세계 유례없는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뿌리부터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났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친 이은경(43·여)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고 깨달았다. 흑시라도 전쟁을 일으키면 어쩌나 싶어 한국 국민이 정말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평화협회 정성업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1등 국가 대한민국을 팔등 국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공식입장과 관련 “현재 국내 상황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 면밀히 지켜 보고 있다”고만 밝혔다. 김형재 기자

+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s)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우메켄 연말

더블 혜택 대잔치

▶ 12월 31일까지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



올 연말 사랑하는 분들께 **우메켄**을 선물하세요

10% 할인 + 무료 선물

\$98이상
제품 구입시
할인+선물



FREE GIFT

씨(C)밸런스
\$39

OR



FREE GIFT

아오지루
녹즙
\$39

\$165이상
제품 구입시
할인+선물



FREE GIFT

발효
미네랄 L칼슘
\$69

OR



FREE GIFT

건강다시
타쿠미 2박스
\$56

할인혜택과 함께 **무료 선물**도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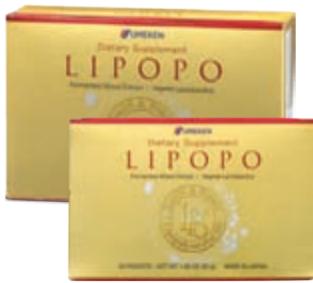
SALE + 선물 증정

베타글루칸 세트



~~\$539~~ ▶ **\$485**

리포포 세트



~~\$439~~ ▶ **\$395**

효소환 세트



~~\$439~~ ▶ **\$395**

L&B 화장품 세트



~~\$439~~ ▶ **\$395**

에센스(\$115)

L칼슘(\$69)
무료증정



FREE GIFT

OR

타쿠미 2박스(\$56)
무료증정



FREE GIFT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ANNANDALE • 웰빙모아 (703)256-5500 • 간강마을 (703)354-151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CENTREVILLE • 웰빙모아 (703)830-775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ELLICOTT CITY • 롯데플라자(410)750-9656 • 모드니에(410)615-6167 • 힐링 마을(443)878-9010 ■ CATONSVILLE • BESETO(410)303-5530 ■ GAITHERSBURG • GREEN COSMETIC(301)926-6307

남편 살해한 한인 여성 기소

술 더 달라는 요구 거절 뒤
몸싸움 벌이다 얼굴 구타에
흉기로 등 찔렸다고 진술



신영미씨가 피어스 카운티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더뉴스트리뷰 영상 캡처]

추수감사절 전날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8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한 한인 여성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타코마 지역 매체 더 뉴스 트리뷰에 따르면, 피어스 카운티 검찰은 신영미(52) 씨를 가정폭력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신 씨의 보석금은 100만 달러로 책정됐다.

피해자인 남편(62)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남편은 난방 관련 사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는 법원에서 주부로 가정을 돌보며 가끔 사무 업무를 도왔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경찰 조사 초기 남편을 찔렀다고 인정했으나, 이후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신 씨는 과거 범죄 기록은 없었지만, 검찰은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사

건의 심각성을 이유로 높은 보석금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7일 발생했다. 신 씨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은 퇴근 후 잭 대니얼스 위스키를 사달라고 요청했다. 신 씨는 술을 구매해 남편에게 전달했다. 남편은 직원 두 명과 작업장에서 추가 작업을 했으며, 직원들이 떠난 후 아내인 신 씨에게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신 씨는 맥주 두 캔을 마셨고, 남편은 위스

키를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 후, 신 씨는 남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할 가능성을 우려해 자동차 열쇠를 숨겼다. 이후 남편이 위스키를 더 달라고 요구했지만, 신 씨는 다음 날 가족이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를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남편은 신 씨의 부모를 욕하며 열쇠를 찾으려 했고, 이를 막으려던 아내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신 씨는 남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오후 11시 30분쯤 신 씨는 피 묻은 손으로 이웃집을 찾아가 남편이 죽어가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요청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 씨는 다름 중 남편의 등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등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으며,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남편의 사망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과 부속 건물을 수색한 결과,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과 깨진 물건, 그리고 혈흔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윤재 기자**



샌버나디노 카운티 온타리오에 거주하던 중국계 불법체류자 성화 웬이 북한에 보내려고 한 무기들.

북한에 무기 보낸 중국계 불법체류자 체포

샌버나디노 카운티 온타리오에 거주하던 남성이 북한으로 무기 등을 보낸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 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기와 탄약을 롱비치에서 홍콩을 거쳐 북한으로 보낸 혐의로 중국계 성화 웬(41)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연방 수사 당국은 8월 14일 그의 집에서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었던 군사용 기구 두 대를 압수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탄약 5만 발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웬은 이 탄약이 북한으로 향할 계획이었다고 인정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미국에 적대적 국가로부터 미국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총기, 탄약 등 군사물

품을 북한으로 불법 배송하려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아킬 데이비스 연방수사국(FBI) LA지국 부국장은 “수사팀은 북한 정권에 추가로 금수 물품이 넘어가는 것을 막았을 뿐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에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했다. 그는 “제재를 회피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무기와 기술을 활용하는 적대국에 대한 불법 수출을 전담으로 하는 요원들의 노력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웬은 ‘국제긴급경제 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다. 중범죄인 해당 죄목의 법정 최고 형량은 20년이다. **김영남 기자**

대한항공, 12월 11일 아시아나항공 주인 된다

신주 인수 잔금 8000억원 투입
2026년 10월 통합 항공사 출범

대한항공이 오는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

대한항공은 3일(한국시간) 공시를 통해 오는 11일 제3차배정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9%)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주인수 취득을 위해 이미 7000억원은 납입한 상태이며, 잔금 8000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통합 마지막 관문인 미국 법무부(DOJ)가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만큼 대한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사실상 종료됐다.

EC는 앞서 합병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부문을 분리 매각과 여객부문에서 유럽 내 중복 4개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을 조건부로 걸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유럽 4개 노선을 이관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8월 이탈리아 로마를 시작으로 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11일(한국시간) 편입한다. [연합뉴스]

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연이어 취항하며 여객부문 합병 조건을 충족했다. 화물부문에서는 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기본합의서를 체결했고, 내년 7월에는 합병 에어인천이 출범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2년간 자회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조직문화 통합을 위해 인력 교류는 물론, 마일리지 통합, 새로운 기업 이미지(CI) 등 화학적 결합을 위한 작업이 이뤄진다.

대한항공은 2026년 10월 25일 목표

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하면 세계 10위권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여객기 135대, 화물기 23대로 총 158대 항공기를 보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중인 화물부문을 제외하고 여객기 68대를 가지고 있다. 합병 후 항공기는 총 226대로 늘어난다. 여객부문의 경우 글로벌 10위권(2019년 기준 11위) 초대형 항공사가 된다. **박영우 기자**

비트코인 1조원 버린 영국 남성 “쓰레기장 뒤지자 아니면 보상금 달라”

영국의 한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진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1조원이 넘는 비트코인의 발굴 여부를 놓고 지방의회와 소유주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하웰스(사진)는 지난 2013년 동업자의 실수로 현재 가치로 6억 파운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담긴 디지털지갑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함께 뉴포트 독스웨이 매립지에 버려졌다고 주장했다.

하웰스는 이를 찾기 위해 매립지 발굴작업을 수차례 추진하고 있으나 뉴포트 시의회의 반발에 부딪히자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하웰스는 시의회에 매립지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거나 4억 9500만 파운드를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뉴포트 시의회는 매립지에 있는 물건은 지방 당국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웰스의 요청에 따라 매립지를 발굴할 “의무가 없다”며 고등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신청했다.

뉴포트 시의회는 이날 카디프에서

열린 심리에서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하웰스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하웰스가 버려진 비트코인의 10%를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이는 뇌물 공여 시도에 해당한다고 시의회는 주장했다.

시의회 측 제임스 구디 변호사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 시의회는 법에 따라 움직일 뿐 공익에 해로운 주장을 중재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쓰레기를 파헤칠 경우 환경 오염을 감당하기 어렵고 하드 드라이브를 찾을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 찾는다고 해도 데이터 복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하웰스의 변호사인 딘 암스트롱은 시의회의 뇌물공여 시도 발언을 불행하고 무의미한 표현이라고 일축하면서 하웰스가 비트코인 회수를 위해 매립지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랄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 격정도 많고, 공정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기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DEC. 5th - DEC. 12th, 2024



東京バナナ
TOKYO BANANA

Japan's most popular **GIFT** is here!

Tokyo Banana
도쿄 바나나

\$10.99

ORIGINAL FLAVOR
1.06 LB (8 EA/PKG)

CJ

bibigo PORK & VEGETABLE MANDU
비비고 왕교자

3 LB BIG SIZE

~~REC. \$15.99~~

\$8.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I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우파 칼슨 전 폭스앵커 또 러시아행...이번엔 외무 인터뷰

친러·친트럼프 극우 논객 “바이든, 러시아와 핵전쟁 위험키워”



지난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인터뷰로 화제를 모았던 미국 폭스뉴스 앵커 출신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이 이번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인터뷰하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았다고 3일 밝혔다. 정치매체 폴리티코,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칼슨은 이날 저녁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우

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재임한 외무장관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어제 모스크바에 왔다"고 밝혔다. 칼슨은 해당 영상에서 지금 라브로프 장관과 인터뷰를 마쳤다면 이번 인터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뷰 내용은 '곧' 공개될 것이라면서 정확한 공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7년간 폭스뉴스의 간판 프로그램 '터커 칼슨 투나잇'을 진행한 인기 앵커 출신인 칼슨은 친(親)러시아·친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는 극우 논객이다.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거론될 만큼 보수층에서 인기가 높은 그는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며 '막후 실세'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과 대면 인터뷰를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과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그는 이번엔 라브로프 장관을 인터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정책이 미국을 러시아와의 핵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 미국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핵전쟁에 가깝게" 만들었다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러시아와 치열한 전쟁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칼슨은 또 내년 1월 취임하게 될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도 이번 인터뷰 주제로 다루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이 뭐라고 답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내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애플도 우리 AI 칩 쓴다”...아마존 주가 최고가 경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주가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자체 개발한 맞춤형 인공지능(AI) 칩을 애플이 사용한다는 소식에 4일(현지시간)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동부 시간 이날 낮 12시 40분(서부 시간 오전 9시 40분) 아마존 주가는 전날보다 2.16% 오른 218.04달러(30만8천199원)를 나타냈다. 이날 주가는 한때 219.99달러에 오르기도 하는 등 지난 14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215.90달러)를 다시 뛰어넘으며 220달러 진입을 눈앞에 뒀다. 시가총액도 2조2천920억 달러로 불어나며 시총 순위 5위인 클라우드 서비스 라이벌 구글(2조1천310억 달러)과의 격차도 벌었다. 이날 상승은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맞춤형 인공지능(AI) 칩 '트레이니엄2'를 애플이 자사의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훈련에 사용한다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 기계학습·AI 담당 임원은 전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연례 아마존 콘퍼런스(AWS 리인벤트)에서 이같이 말하며 "트레이니엄2를 평가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사전학습을 통해 효율성이 최대 50%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애플이 AWS의 연례 행사에 참석하고 트레이니엄2 이용 계획을 밝힌 것은 엔비디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AI 칩 시장에서 AWS에 대한 지지로 해석됐다. 아마존도 트레이니엄2 칩이 탑재된 새로운 데이터센

터 서버를 선보이며 엔비디아와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주가는 지난달 말 주가는 186.40달러였으나, 이달 들어 20% 가까이 올랐다. 그동안 성장이 둔화했던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인 AWS의 3분기 성장률이 19%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목받았다. 아마존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의 추격을 받아 왔다.

‘불법 이민자 추방’에 “노동시장 지각변동”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컨트랙터 컨설턴트'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맷 디바라는 "(트럼프 이민자 공약으로) 노동시장이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며 그 규모가 150만 명이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기간 자신이 당선되면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개시하겠다고 거듭 공언한 바 있다.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과 천연자원,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가능성이 미국인 노동자보다 높았다. 디바라 CEO는 이민자들이 추방될 경우 여성과 Z세대(19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반 출생)가 그 빈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더 많은 여성이 노동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Z세대도 건설 산업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 블루칼라 노동자에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변화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22년의 경우 석공·지붕 수리공 3명 중 1명이 서류 미비(불법) 이민자라는 추가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또 "솔직히 향후 10년 동안 전체 인력의 40%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공백을 메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원 공화 220·민주 215석...1명만 이탈해도 비상

캘리포니아주 13선거구의 개표가 완료되면서 지난 달 5일 대선과 함께 실시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5석을 차지한 것으로 4일 확정됐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수가 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잇단 인사 차출로 당분간 실제 의석수 격차는 2석에 불과해, 공화당에서 1명만 이탈해도 트럼프 당선인은 정권 초기의 국정 과제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13선거구에서 민주당 애덤 그레이 후보가 공화당 현직인 존 두아르테 하원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최종 개표 결과 그레이 후보는 200표



차 미만으로 두아르테 의원을 앞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일 개최하는 제119대 연방의회 하원에서 공화당은 220석, 민주당 215석의 의석을 각각 가지게 됐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을, 주유엔 대사에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뉴욕)을 각각 내정한 상태다. 왈츠 의원은 2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 하원의원직을 사임할 예정이다. 스테파닉 의원도 주유엔 대사로 임명되면 하원의원직을

내놓게 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성비위 의혹 속에서 자진해서 사퇴한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의 자리도 공석이 된다. 내각 후보로 지명되면서 의원직을 사퇴한 그는 이번 하원 선거에서 승리했으나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하원에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왈츠 의원과 게이츠 전 의원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일 진행된다. 스테파닉 의원의 경우 뉴욕주법에 따라 의원직 사퇴 시 90일 이내에 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초 100일간 하원의 의석수는 사실상 공화당 217석, 민주당 215석이 되는 셈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머스크와 지지자들, ‘보상안 무효’ 판사 비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그의 지지자들이 머스크에 대한 테슬라 보상안이 무효라고 판결한 판사에게 온라인에서 비난 공세를 벌이고 있다. 지난 2일 델라웨어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당일 주가 기준으로 1천15억달러(약 142조7천598억원)에 달하는 테슬라의 CEO 주식매수선택권(스톡 옵션) 보상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에 머스크는 당일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판결을 일컬어 "절대적인 부패"라고 비난했다. 이후 머스크의 지지자들은 맥코믹 판사의 사진을 게시해 공유하고 그를 비난하는 댓글을 쏟아냈다. "미쳤다",

"당장 판사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완전히 사악하다, 이 판사는 감사 받아야(audited) 한다", "그녀를 감옥으로 보내자" 등 혐악한 반응이 잇달았다. 맥코믹 판사는 그동안 테슬라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2018년 결정된 머스크 보상 패키지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을 맡아 심리해 왔으며, 지난 1월 처음으로 해당 보상안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정을 잠정적으로 내렸다. 이후 테슬라 이사회가 해당 CEO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올해 테슬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해 지난 6월 주주 투표를 통해 통과되자 맥코믹 판사에게 재고를 요청했지만, 맥코믹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 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50
유럽유심 \$50
eSIM 판매 시작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여행사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Korea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고풍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탑여행사 한국지사가 직접 운영, 모시고 갑니다.

1차 3/25~4/04
2차 4/15~4/25
3차 6/17~6/27
(영어 투어)

4차 9/16~9/26
5차 10/14~10/24
6차 10/21~10/31
7차 10/28~11/07

특전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
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탑여행사에 방문하시면
2025년
특상용 달력을 드립니다.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롯데호텔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그랜드 조선 부산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롯데호텔 제주

연합상품

3박 4일 **서남권** \$899+항공

4박 5일 **동해권** \$999+항공

5박 6일 **서남+제주** \$1499+항공

9박 10일 **전국일주** \$2149+항공

3박 4일 **동경** \$999+항공

8박 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3박 5일 **오사카** \$999+항공

TMCI 고국 건강검진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555/여 \$595 미국국적 남 \$720/여 \$770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현대아산병원 / 서울대병원 / 가천대길병원

동남아 여행

방콕/파타야

푸켓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대만

싱가폴

3박 5일 \$4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왓포사원, 콜로세움, 파타야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박사원, 코끼리 트레킹, 악어농장, 백만년바위공원, 태국특산물

3박 5일 \$599+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팡만 해양국립공원, 아프로디테스, 파동야시장, 피피섬, 왓찰롱 사원, 코끼리 트레킹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하롱테마파크, 호치민영모 생활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3박 5일 \$450+항공
출발: 격주 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안, 투본강 일본내원고, 전가사당, 풍류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애성, 티엔무사원, 선짜사원, 다낭대성당

3박 4일 \$6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국립공공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허제 야시장, 서문경거리, 태로산협곡, 화련 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촌, 야류해양국립공원, 자우편거리

3박 5일 \$7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 베이, 리버윈더스, 핸드스 웨이 브릿지, 하저라인, 부기스재래시장, 마리아안공원, 차이나타운, 센트사션, 실로소스티

파타고니아 1/14~1/24 10박11일 \$6790+항공
신비의 인도 1/28~2/09 12박13일 \$3390+항공
코스타리카 2/04~2/08 4박5일 \$1990(항공포함)
호주&뉴질랜드 2/12~2/09 11박12일 \$3790+항공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2/20~3/01 9박10일 \$3590+항공
아프리카&두바이 2/20~3/05 13박14일 \$9850+항공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3/17~3/29 12박13일 \$5490+항공
브라질/아르헨티나 3/17~3/24 7박8일 \$3190+항공

페루 일주 3/23~3/29 6박7일 \$2990+항공
고풍격 고국일주 1차 3/25~4/04 10박11일 \$2990+항공
봄방학 특선 남프랑스 4/14~4/20 6박7일 \$2990+항공
고풍격 고국일주 2차 4/15~4/25 10박11일 \$2990+항공
정통 서유럽 4/23~5/03 10박11일 \$3590+항공
정통 동유럽 4/30~5/08 8박9일 \$3390+항공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4/30~5/13 13박14일 \$4590+항공
그리스&튀르키예 5/06~5/16 10박11일 \$2990+항공

발칸 크로아티아 5/07~5/13 6박7일 \$29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5/13~5/23 10박11일 \$3390+항공
정통 서유럽 5/20~5/30 10박11일 \$3590+항공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5/23~5/26 3박4일 \$1290+항공
아이슬란드 일주 6/03~6/11 8박9일 \$5690+항공
스위스 알프스 일주 6/10~6/18 8박9일 \$4590+항공
고풍격 고국일주 3차(영어) 6/17~6/27 10박11일 \$2990+항공
영국일주 6/18~6/29 11박12일 \$5890+항공

북유럽 4개국 6/24~7/04 10박11일 \$5290+항공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6/30~7/05 5박6일 \$1690+항공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7/01~7/04 3박4일 \$1290+항공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7/08~7/18 10박11일 \$3590+항공
북유럽 4개국 8/05~8/15 10박11일 \$5290+항공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8/11~8/16 5박6일 \$1690+항공, \$2290(항공포함)
알래스카 일주 8/14~8/20 6박7일 \$2990(항공포함)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8/29~9/01 3박4일 \$1290+항공
알래스카 크루즈 9/08~9/15 7박8일 \$2190(항공포함)
정통 서유럽 9/09~9/19 10박11일 \$3590+항공
고풍격 고국일주 4차 9/16~9/26 10박11일 \$2990+항공
그리스&튀르키예 9/24~10/04 10박11일 \$2990+항공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9/30~10/13 13박14일 \$4590+항공
정통 동유럽 9/30~10/08 8박9일 \$3390+항공
크로아티아 발칸 10/07~10/13 6박7일 \$29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10/07~10/17 10박11일 \$3390+항공
정통 서유럽 10/09~10/19 10박11일 \$3590+항공
고풍격 고국일주 5차 10/14~10/24 10박11일 \$2990+항공
프랑스 일주 10/16~10/29 13박14일 \$5690+항공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회) 10/21~10/30 9박10일 \$2290+항공
고풍격 고국일주 6차 10/21~10/31 10박11일 \$2990+항공
산티아고 순례길 10/28~11/07 10박11일 \$3590+항공
고풍격 고국일주 7차 10/28~11/07 10박11일 \$2990+항공

X-마스 특선

라디오시티 라켓쇼

일년에 단 한 시즌만 공연하는 미국 최고의 크리스마스 공연 라디오시티 스펙타큘러 쇼 관람

1박 2일 12/23~24 \$499

당일 산타와 함께하는

스트라스버그가차 & 롱우드가든

12/13, 12/20 \$179

당일

라디오시티

12/10, 12/17 \$199

2025

신년 해맞이

1월 1일 \$89

마지막 찬스

성극 다니엘

12/12 \$199

12/20일 마감, 단체 8명부터 환영
2025년 3월부터 '노아' 공연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퀘벡/플래츠버그/뉴욕

5박 6일 \$1350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2박 3일 \$650

뉴욕브루클린 댐보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3박 4일 \$899

뉴욕

1박 2일 \$399

참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DC런치크루즈 \$169(주중) \$199(주말)

미서부 일주

참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 도시와 3대캐넌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500+항공

서부 4대 캐넌

5박 6일 \$990+항공

5대 캐넌+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옐로스톤

5박 6일 \$9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550+항공

옐로스톤

3박 4일 \$930+항공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 피한 MZ계엄군... 1980년 '서울의 봄'과 달랐다

280명 소총 무장하고 국회 진입
회의장 봉쇄 안해 사실상 가결 도와
일부 간부는 계엄사 보직 거부도
"비상식적 명령 땀 불복종도 가능"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된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를 철수하고 있다. [뉴스1]

'MZ 계엄군'은 달랐다. 윤석열 정부가 꺼내 든 비상계엄 카드가 무위로 돌아간 데 지휘부의 명령이라 해도 비상식적이라면 쉽게 수긍하지 않는 이들의 사상관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통해 국회 활동을 금지했으나, 계엄군이 이를 철저히 따르지 않은 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본회의 가결을 사실상 도왔다는 것이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3일) 오후 11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제707특수임무단, 수도방위사령부 제35특수임무대 등으로 구성된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다. 해당 부대들은 육군의 최정예 전력으로 평가 받는다. 이들의 우선 임무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사 포고문 1번에 따라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의 국

회 출입을 막는 것이었다. 실제 작전인 만큼 방독면, 야간투시경은 물론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다. 단창이 장착된 소총과 제거된 소총이 모두 식별돼 실탄 장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탄 상자로 추정되는 물건을 소지한 일부 병력이 시민들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의미다. 국회는 이날 오후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군 당국이 행위를 24차례 동원해 무장 계엄군 28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킨 걸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결과적으로는 임무 수행에 실패했다. 당시 영상 등을 보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면서 진입했지만, 그 이상의 물리적 행사를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것도 제지하지 않았다. 한 야당 보좌관은 "계엄군 병력이 의원들의 출입을 묵인한 듯 보이니까"라며 "결국 본회의 개최를 막으려던 계획은 허사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오전 1시쯤 190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계엄 사태는 마무리 수준으로 접어들었다.

이는 계엄군이 '명령 준수'보다 '상황 판단'을 우선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전사의 모체 부대인 1공수여단이 12·12 군사반란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행보와도 상반된다. 군 안팎에선 MZ 군인들의 달라진 인식이 이번 사태에서 확인됐다는 시각이 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최정예 병력이라 할지라도 작전에 대한 목표 인식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불복종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의미다. 특전사 부대장을 지낸 한 예비역 장

성은 "계엄군이 무엇을 해야 할지 치밀한 계획은 물론 목적도 명확하지 않게 명령이 하달됐다고 본다"며 "요즘 젊은 군인들 입장에선 이런 명령 자체가 유지한 수준의 정치행위로 여겨지지 않았겠다"라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 투입된 군·경 사이에서 명령 거부 기류가 감지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일하러 가는데 막는 게 맞습니까"라고 소리쳤을 때 일사불란하다는 느낌보다 안에 상당한 동요가 있다는 게 보였다"고 평가했다.

온라인상에는 국회 본청 건물에 투입됐던 무장 계엄군이 시민에게 고개 숙인 뒤 철수한 사진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MZ 군인뿐 아니라 일부 간부들도 이번 계엄령 작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계엄사령부에서 주요 보직을 부여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몇몇 인원은 곧 다가올 전역 시기 등을 언급하며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 이 때문에 2순위 직책자가 해당 보직을 맡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한다.

정영교·이근평·이유정 기자

낙달 전 '계엄령 준비' 주장했던 김민석 "김여사 사법리스크가 동기"

당시 용산 '괴담으로 선동' 부인
김용현도 "국민이 용납하겠나" 일축

야권에서 그동안 계엄령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해왔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

서 열린 민주당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비정상적인 권력을 비정상적으로 지켜주려다 비정상적인 수단을 썼다"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궁지에 몰려서 더 비정상적으로 질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군이 국회에 떨어뜨리고 간 케이블 타이 수갑을 들어 올리며 "미친 대통령 하나가 흥기를 손에 들고 음주운전을 하는 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당장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해 과문을 일으켰다.

이에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계엄을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고 일축한 바 있다.

당시엔 야권에서도 대대 공세를 위해 꾸민 얘기라는 평가가 적잖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추사에서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것과 계엄령을 대비해 이른바 '총압과'를 만들었다는 정도가 근거로 거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이어 이재명 대표가 9월 1일 여야 대표 회담 도중 계엄령 준비 의혹을 거둬고 나섰다.

당시 대통령실은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고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 표지를 걸고 말하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불과 서너달 만에 김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 결과적으로 합리적 의심으로 확인됐다.

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김 최고위원을 향해 "제대로 한 건 했다"는 말을 건넸다.

김정재 기자

"5·18 떠올랐다"... 8년만에 전국서 동시다발 촛불집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4일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동시다발적으로 촛불 집회가 열린 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8년 만이다. 전국민중행동·민주노동총연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촛불' 집회를 열었다. 모여든 인파는 주최 측 추산 1만명에 달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북 영천에서 온 퇴직 교사 이현규(63)씨는 "1979년에 계엄을 경험

했다"며 "다음 세대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3시간 반 걸려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전날 밤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했던 여의도 국회 앞에도 경찰 추산 2000여명의 시민이 모였다. 전날부터 국회 앞에 있었다는 의정부 거주 박종민(31)씨는 "국민이라면 무조건 나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고교생 김모(17) 군은 "기말고사를 마치고마자 아버지와 함께 왔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에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오후 7시부터 옛 전남도청 앞 광주 민주

광장에서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에는 같은 곳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시국대회가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80년 5월의 아픔을 경험하고 배웠던 우리는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장에서 만난 서정필(64)씨는 "뉴스에서 국회 인근에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장갑차가 등장한 모습을 보고, 5·18 당시 목숨을 잃은 친구가 생각나 새벽 내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도 윤 대통령 규탄 집

회가 열렸다. 대구경북지역대학 동문·졸업생 1000명은 이날 오후 5시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며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강원 춘천시 거두사거리 일원, 제주 제주시청 민원실 앞, 경남 창원시 창원광장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렸다.

부산에선 부산진구 서면에서 내주 초까지 매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부산시민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전날 밤 여의도 국회에 집결했던 시민들은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에 맞서 맨몸으로 국회를 지켰다. 한 시민은 정문에서 "군인은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왜 국회로 들어가려 하는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본관 앞에 모인 시민들은 1980년처럼 "계엄 철폐, 독재 타

도"를 외쳤다. 가끔 통곡과 울음소리가 새어 나오기도 했다. 4일 오전 1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시민들은 일제히 "만세"를 외쳤고, 일부는 철수하는 군 장갑차를 가로막으며 항의하기도 했다. 박모(59)씨는 "밤사이 '서울의 봄' 영화에서 보던 일이 벌어졌다. 이게 대한민국이 맞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날이 밝은 뒤에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에서 '인간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던 강모(29)씨는 "출근을 해야 하지만, 장갑차 등이 다 시울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신혜원·김서원·이수민·이찬규 기자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리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터미이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 **패어팩스 싱글 \$795,000**
방 4, 화장 3, 2레벨 싱글, 문빈슨 하이, 495/66/395, 조지타운 대학, 트윈부룩 풀, 전부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새 지붕, 새 가전, 새 HVAC, 새 외벽, 새 마루, 새 커튼 (지하 방, 풀바스, 우드 fireplace) 선릉, 페리온, 워크아웃
- **옥톤 싱글 렌트 \$3,600**
방 4, 화장 2, 차고 2, 아틀란틱 넓은 정원, 조용한 동네, 123/66/267/495/286, 메디슨 하이
- **애난데일 콘도 렌트 \$1,800**
3층, 방 1, 화장 1, 전부마루 리모델링, 아메리칸마트 인근 236/295, 1,000sqft, DC, Amazon 12마일
- **센트럴 던킨 뒤 오피스 렌트 \$2,100**
1,250 sqft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릴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 **센트럴 미용실 \$90,000**
- **개인빌 상업용 미장원렌트 \$3,300**
1300sqft, 29/66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나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GSHwang Realty

JGL Construction Inc.
RESIDENTIAL & COMMERCIAL

jglconstruction.com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랙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지붕 ★
스페셜 프로모션
10sq 이상
\$3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게임 직전 '기습 국무회의' ... 장관들 반대에도 대통령이 강행

군사작전 같았던 3일밤 국무회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게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의 게임 선포 직전인 오후 9시~9시40분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렸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게임령 권한을 규정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장관은 회의장에 도착해서야 심의 안건을 알게 됐다고 한다.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다. 윤 대통령 외에 사전에 게임 선포를 인지했던 이로는 윤 대통령의 총참모장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정도가 꼽힌다. 국무회의 개최 사실을 알았던 대통령실 참모역시 아무도 없었다.

윤 대통령의 게임 선포 과정이 물 흐르듯 진행됐던 건 아니다. 국무회의 개최 약 1시간 전인 오후 8시쯤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게임 소식에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대통령실로 불러들이기 시작했다.

게임 선포의 신속한 집행을 고려해 국무회의의 최소 정족수인 과반(11명)이 채워지자 회의가 시작됐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참석이 확인됐다.

한 총리 외에 최 부총리와 조태열 장관 등이 국무회의에서 "경제와 외교가

어려워진다"며 게임령에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한 조태열 국정원장도 게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와 탄핵 소추에 대응해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남은 마지막 카드가 게임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헌법상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는 상당히 심각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일부 장관의 반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이 밀어붙이니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별도의 의결 절차는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설령 표결했음지라도 게임 선포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후 10시23분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비상게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의 게임 선포가 있는 지 약 157분 뒤인 4일 오전 1시쯤 국회는 게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후 3시간30분 뒤인 오전 4시30분에 다시 국무회의가 열려 게임 선포 6시간 만에 게임 해제안이 의결됐다. 국회 가결 뒤에도 윤 대통령이 게임 해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한 총리와 일부 장관이 나서 윤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것이 여론 인사들의 전언이다.

윤 대통령은 게임 해제 직전인 4일 오전 4시27분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국회의 게임 해제 요구가 있어 게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박태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와 국무위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름	부서	참석 여부	이름	부서	참석 여부
한덕수 국무총리		참석	김용현 국방부		참석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참석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		불참	강정애 국가보훈부		불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답변 거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불참
조태열 외교부		참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참석
김영호 통일부		참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거부
박성재 법무부		참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참석
김완섭 환경부		불참			
김문수 고용노동부		불참			
공석(번자리) 여성가족부		-			
박상우 국토교통부		불참			
강도형 해양수산부		불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참석*			

*는 중앙일보 취재 결과, 부처는 공식 확인 거부

'총참모' 김용현 8월 갑자기 국방장관 이동...

>> 1면 '김용현'에서 이어집니다

윤 대통령이 김 장관과 먼저 상의한 뒤 게임 선포를 마음먹고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추론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부 당국자에게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고 한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은 지난 8월 갑작스러운 인사를 통해 신원식(육사 37기) 안보실장, 김용현(육사 38기) 국방부장관 등 '강경 매파'를 안보 진용에 전진 배치했다.

신 실장과 김 장관은 모두 육사 출신의 군 엘리트로, 수도방위사령관·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거친 작전통으로 꼽힌다. 두 사람 모두 북한을 향한 대적관·안보관이 투철하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란 이유를 든 것도 이런 대북 강

경과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총참모 1년 선배인 김용현 장관은 20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맡아 대통령실 이전의 실무를 맡았고, 이후 초대 경호처장을 거쳐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용산 대통령실의 전현직 참모들에 따르면 김 장관은 경호처장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모든 말에 "맞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화답했다고 한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게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게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게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동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태 변호사는 "게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게임 해제 요구

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게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

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

판 등에서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게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저세교정 운동 (축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파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철틀러 지역]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시플랜

“확 계엄해 버릴까” 윤 대통령, 평소에도 종종 얘기했다



야권 의원들이 4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발의에는 야6당 의원들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강정현 기자

대통령 말에 “맞습니다” 외친 예스맨

한 소식통은 “김 장관이 대통령의 말에 한 번이라도 반대한 걸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2022년 3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공식 발표하기 전 이뤄진 인수위원회 내부 회의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다. 당시 발표를 맡은 김 장관은 “(당선인 이)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니 무조건 옮겨야 한다. 그러나 이제부터 근거가 될 논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회의 내내 발언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김 장관 주변

에선 “거침없는 언사와 불도저식 업무 스타일 등이 윤 대통령과 싱크로율이 99%”라며 “대통령이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왔다. 야권에선 김 장관을 구심점으로 한 ‘총암과’ 등 파벌 의혹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 장관이 학연·군무연을 중심으로 계엄령 준비를 위한 친정 체제 구축을 시도하려 한다”는 게 골자였다. 군 지휘부 가운데 대표적인 총암고 출신으로는 방첩 임무를 총괄하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대북 특수정보

수집 임무를 담당하는 박종선 77사령관이 꼽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여 사령관과 광종군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은 모두 계엄 사태 때 주요 보직을 맡는 자리다. 박태인·이유정 기자

‘6시간짜리 계엄’ 미스터리

선포에서 해제까지 여섯 시간이 걸린 윤석열 대통령의 3일 심야 비상계엄 발령은 여러 의문점을 낳고 있다. 윤 대통령이 왜 계엄령 카드를 꺼냈는지, 누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몇 시간 만에 끝난 건 무엇 때문인지 등이 대표적이다. 여론에선 윤 대통령을 계엄으로 이끈 핵심 인물로 총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꼽는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8월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놓고도 “계엄 상황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 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임 직후부터 경호처장을 맡았던 김 장관이 국방부로 옮기면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로 자리를 이동했다. 여론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 인사는 계엄령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총암고를 나왔다. 이 두 사람은 특히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각별해 대통령실에서도 “윤 대통령과 정권이 끝날 때까지 함께 갈 사람”으로 여겨졌다. 윤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 성격이 화를 부른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30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에 없던 때 ‘이준석 패싱’ 논란을 일으키며 전격 입당한 이후부터 “중요한 결정을 즉흥적으로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여론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확 계엄해 버릴까” 하는 말을 종종 했다고 한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23분 담화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대통령실 참모진 대부분은 미리 알지 못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조차 계엄령 발령이 임박해서야 정보를 공유받았다고 한다. 국무회의 참석자 대부분도 회의가 시작된 뒤에야 알았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여론 고위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도 계엄 선포를 미리 몰랐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여론 관계자는 “차라리 김 여사가 미리 알았으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소동이 안 되긴 마찬가지였다. 친윤계의 원들도 “용산 참모들도 몰랐는데, 우리가 뭘 알았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가장 큰 의문은 윤 대통령이 불과 여섯 시간 만에 수포가 될 일을 실행한 이유다. 여론에선 보안에만 몰두하다 실행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심 역할을 맡을 군 지휘관도 담화 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증언이 나온다. 수도권 주요 사령관은 “나도 포고문이 나오는데 보고 알았다. 황당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실행력을 오관했을 가능성도 있다. 3일 심야 상황에서도 군 병력보다 야당 의원이 먼저 국회에 집결했다. 일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애초부터 경고에 방점을 두고 벌인 일”이라고 주장한다. 여론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회와 무력 충돌이 생기지 않게 계엄 선포 한 시간 뒤에 군대를 출동토록 하고, 계엄군에게 공포탄을 지급하거나 탄창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입법 폭주를 하는 야당에 경고하러던 것이지, 실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했겠느냐”고 주장했다. 허진·박태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5당 대표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

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환란 조장하는 과업·태업 금지 등 6개 항목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

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법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석경민·양수만·김준영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원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우리말 바꾸기

‘늘그막’?, ‘늘으막’?

늘그막에는 고향으로 내려가 뒷밭을 가꾸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다” “고향에 집을 지어 형제들과 모여 사는 것이 늘으막의 유일한 꿈이다”와 같이 말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노년을 뜻하는 단어로 위에서와 같이 ‘늘그막’이나 ‘늘으막’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어느 것이 올바른 말일까? ‘늘다’를 활용할 때 ‘늘금’이 아니라 ‘늘음’이라고 하듯 보통 ‘늘다’의 어간인 ‘늘-’을 살려 ‘늘으막’이라고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올바른 표현은 ‘늘그막’이다.

한글맞춤법 제19항에 따르면 어간에 ‘-이, -음’이 아닌 그 외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다른 품사로 바뀐 말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돼 있다. ‘늘그막’은 ‘-이’나 ‘-음’이 접미사로 붙은 형태가 아니므로 ‘늘으막’과 같이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아니라 ‘늘그막’처럼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바르다. 시간이나 기한이 매우 늦다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인 ‘느지막하다’가 있다. ‘늘그막’을 떠올려서인지 ‘느지막하다’로 쓰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느지막하다’가 아니라 ‘느지막하다’가 맞는 말이다. ‘느지막하다’뿐만 아니라 우리말에서 ‘-즈막하다’로 끝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이슈 진단

김정은은 무슨 전쟁을 하고 있나?



이무영
뉴미디어국장

김정은은 할아버지가 발표한 7.4 남북공동성명을 폐기했다. 남북관계에서 “민족”과 “통일”을 지우겠다는 뜻이다.

북한 주민들은 “미국의 식민지에서 핏빛고 굶주린 남조선 동포를 해방해야 한다”고 사상교육을 받아 왔다. 그런데 갑자기 남한은 같은 “민족”도 아니고 “통일”할 대상이 아니라 “교전 중인 적국”이라고 사상교육 내용을 바꿨다.

할아버지의 업적까지 폐기하면서까지 남한을 “교전 중인 적국”으로 규정하는 것은 남한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같은 민족인 남한의 문화를 알려고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부가 지난 6월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이른바 ‘3대 사회통제 약법’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다수 탈북민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했다. 3대 약법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이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적대국의 녹화물

을 많은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집단적으로 시청·열람하도록 조장한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한 노래·드라마 등 외부 정보가 1990년대부터 북한에 유입됐으며 2000년대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파가 가속화됐다.

2010년 이후에는 휴대전화가 주요한 정보공유 매체가 됐고 SD카드, USB 등 정보공유 방식도 다양해졌다. 단속은 해도 처벌은 많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남한 영상물이나 노래를 시청·청취했다는 이유로 사형까지 당하는 사례도 나왔다.

탈북민 단체들이 쌀과 달러 지폐를 포함한 전단지 등을 풍선에 실어 북으로 날려보내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경기를 일으키는 것도 전단지에 남한의 실상을 알리는 글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을 폭로한 글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외부 정보의 유입은 북한주민의 사상통제를 어렵게 해 결국은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태롭게 한다. 김정은이 선대의 정치이념인 “민족 통일”을 모두 버리고서라도 남한 정보 유입을 차단하려는 이유이다. 그래서 ‘남조선’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대한민국’이라 지칭하면서 남한을 ‘통일해야 할 같은 민족’이 아니라 “초토화해 버릴” 적대국으로 만들어 교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 한다.

지금 김정은은 정권 유지를 위해 외부 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쇄국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J네트워크

일본과 한국의 패착, 결정적 장면들



정원석
도쿄 특파원

“한국 언론은 왜 야스쿠니 신사에만 매달리는가? 양국 관계에 끼칠 부정적 영향은 생각 않는가?” 일본 유력 일간지 논설위원이 지난주 한 사석에서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에 대해 한국 정부와 언론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한 얘기였다. 일본 정부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때문에 불참한 게 아니더라도 야스쿠니 문제만 부각된 현 상황은 일본 측 프레임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 자리에 있던 일본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불편한 건 쳐다보지 않는 게 마음의 안정을 위하는 길이라 했던가. 사과나 반성 한 줄 없는 추도사, 고초를 겪다 으스스해진 조상의 발자취를 찾아 현해탄을 건넌 유가족을 위해 조선인을 위한 목도를 하게 해달라던 요청을 묵살한 일은 모르는 듯 했다. ‘감사하다. 애도한다’로 요약되는 추도식 현장은 외면당했다. 건물 쪽문으로 들어 왔다가 도망치듯 빠져나간 정부 대표에 대해 일본 언론은 침묵했다. 추도식 손님이었다던 유가족은 쓸쓸히 제를 올렸지만, 결론은 야스쿠니 문제가 발목

잡아 불참, 이것이 본질을 외면한 일본의 ‘프레임’이었다. 우리 외교부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결정적 장면을 하나 꼽자면 추도식이 열린 지난 11월 24일 외교부 언론 대응 자료였다. 불참 결정 때만 해도 외교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본질이 아니며 진정성이 없는 추도식 내용이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불참 결정 이후 주한일본 대사관이 “이쿠이나 정무관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언론대응을 하자 이에 “참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 자료를 냈다. 당시 증거 마냥 제시한 자료가 이쿠이나 당

시 참의원이 야스쿠니에 참배했다는 교도통신의 2년 전 기사였으니 ‘아빨까’.

해당 기사가 오보로 결론 나면서 주된 불참 이유로 일본에 소개된 야스쿠니 참배 문제는 ‘오해’가 되고 말았다. 교도통신 사장은 외무성을 찾아가 사과했고, 일본 언론들은 2년 전 오보가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줬다고 결론 내며 프레임이 완성됐다. 한국 정부의 자책골로 어부지리 승을 거둔 일본에선 “배려가 부족했다”며 승자가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의 반일병, 지겹다’고 쓴 데 비하면 낫다고 해야 할지 시ết말로 “굽혔다”고 해야 할지, 한국이 따로 추도식을 열던 장소엔 나뭇이 수복했다. 이른 아침부터 계단을 빗자루로 쓸며 정돈하던 일본인을 만났다. 왜 여기사 청소를 하느냐고 묻자 그는 유가족도 오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나왔다고 했다.

현장에 이른 작지만 뜻있는 목소리도 있다. 문제는 과거사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고질적인 패착 아닐까.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성공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8) 노무현표 검찰 개혁

대통령 호출 거부한 검찰총장... “국민이 수사 믿겠습니까”

노무현에게 최우선 개혁 과제 하나를 꼽으라고 했다면 과연 무엇이라 했을까. 아마도 권력기관의 개혁, 그것도 검찰 개혁을 꼽았을 것이다. 실제 그랬다.

시작은 청와대부터였다. 민정수석실의 파견 검사부터 검찰청으로 돌려보냈다. 연락책을 철수시킨 셈이다. 검찰을 연결하는 직통 비상전화도 때 버렸다. 대통령이 검찰 일에 개입하거나 연락할 일이 없을 테니, 검찰은 검찰 본연의 일이나 충실 하라는 거였다. 민정수석 또한 검찰 출신을 배제 하고 절친이자 인권 변호사로 이름이 난 문재인 을 앉혔고, 여기에 더해 최초의 판사 출신 여성 법무장관 강금실까지 내세웠으니 검찰 개혁의 초장 모양새는 매우 그럴듯했다.

주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맞짱토론을 자칭한 것도 노무현으로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남다른 의지와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토론 을 통해 정치 불개입 의지를 천명하고, 젊은 검사 들 앞에서 검찰 수사권 독립 보장을 쫓아내 선언 해 박수를 받고 싶었으리라. 그러나 세상만사가 그렇듯이 결코 여의치 않았다.

‘검사 토론’ 후폭풍... 송광수 발탁

검사와의 맞짱토론부터 심상치 않았다. 검찰 총장 김강영이 토론 당일 밤 사의를 밝혔고, 곧바로 후임으로 송광수가 내정된다. 송 총장은 후배 검사들의 신망을 얻어 왔던 인물이었기에, 여기 까지만 해도 있을 수 있는 해프닝이었다.

문제는 SK 수사였다. 아무도 이것이 노무현 참 여정부를 아찔한 위기 국면으로까지 몰고 갈지 몰랐다. SK 수사팀에 소속돼 있던 이석환 검사가 “수사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말을 ‘맞짱 토론’ 중에 불쑥 꺼냈을 때만 해도 그 사건 수사의 폭발력을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재벌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보통이 었다. 상부의 지시나 승인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사전 소통은 늘 있었다.

SK그룹이 세계 랭킹 3위였음을 감안할 때, 당 연히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진행해 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참여정부는 출범 부터 스스로 벽을 쌓아 검찰과의 소통을 차단하 지 않았다. 수사는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 수사 관련 업무 자체 를 삭제해 버렸으니 검찰로서는 이보다 편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평강한 명이 대통령한테 대놓고 외압 운운하며 파란을 일으킨 것이다. 대통령은 “모르는 이야기”라면서 “대체 누가 외 압을 가했는지 밝히라”고 응수했다. 누가 봐도 공 색한 쪽은 대통령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몰랐을까. 사건의 앞 뒤 정황을 돌아켜 보면, 대통령이 SK 사건에 숨겨 진 뇌관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거짓이다. 아무리 검찰과 철벽을 쌓았다 해도 어느 정도 상황은 파악하고 있었다.



2003년 6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검사장과의 오찬을 위해 강금실 법무장관(오른쪽), 송광수 검찰총장(왼쪽 둘째), 문재인 민정수석 등과 오찬장에 들어가고 있다. [중앙포토]

사건을 우선 요약 정리해 보자. 검찰은 2003년 2월 SK의 부당내부자 거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김창근 본부장에게서 대선자금에 정치권에 제공한 구체적 사실을 자백받 았고, 거기에는 노무현 캠프 측에 돈이 전해진 내 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사무총장 이상수 의원이 나서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기도 했다.

검찰의 공식 수사 발표(3월 11일)는 SK사건을 단순 분식회계 사건으로 규정하고 최대원 회장 등을 구속했을 뿐, 정치자금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무려 1조5000억원대의 초대형 분식회계 사건이었으므로 그 자체가 충격이 컸다. 돈 받은 정치인들의 이름과 액수까지 드러났다. “지하주 차장 차떼기 돈상자” 얘기가 나온 것이 바로 이때 다. 금액으로 보면 이회창 쪽이 훨씬 많았으나 폭발력이 더 큰 것은 현직 대통령 쪽에도 재벌 돈이 갔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민정수석 문재인이 자서전 『운명』에서 한 말을 들어 보자.

“언론은 연일 최도술 전 비서관의 연루 사실을 썼다. 이미 민정수석실이 오래전부터 포착해 대통령에게 보고드린 내용이다. 지난 8월 비서실 인 사 때 그를 청와대를 떠나게 한 것도 사전 대비 조치였다.”

대통령이 사건 전모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이야 기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차츰 자신을 향해 다가 오고 있음도 몰랐을 리 없다. 대통령의 ‘영원한 집 사’라 불리던 최도술이 9월 초에 출국 금지됐다. 노무현은 정말 하기 싫었던 전화를 걸어야 했다.

검찰총장에 직접 전화 건 대통령

검찰총장 송광수는 2003년 9월 어느 날 아침,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송 총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내가 선거를 해보 니까 참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문제가 많습니다. 선거 제도에 대해 총장과 얘기해 보고 싶은데 청

청와대·검찰 연결 직통전화 때버려 수사권 독립 성과, SK사건엔 부메랑 최측근 연루돼 노 정부 도덕성 훼손 검찰이 개혁 떠안게 돼... 특권 강화



2003년 3월 11일 검찰이 SK 비자금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인규 부장검사, 한동훈 검사, 차동연 부부 장검사. [중앙포토]

와대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송광수는 ‘아차’ 싶었다. 그러나 영겁결이긴 했 어도 흐트러짐 없이 정중히 대답했다.

“대통령님을 뵈었다고 하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든 국민이 믿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호출을 거절하다니... 잠 시 정적이 흘렀다.

“그 생각도 맞네요. 알았습니다.”

서로 답답한 어조로 웅건만 한마디씩 주고받은 짧은 통화였다.

대통령의 호출을 거절한 검찰총장이나 그거절 을 그대로 수용해 준 대통령이나 모두가 예상밖 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과 검찰총장이 단둘이 만나서 무슨 선거 제도 를 논하자는 것인가. 들으나 마나 한국의 정치 현실 과 정치자금 수수의 불가피성 운운하면서 최도 술의 선처를 부탁하려던 것 아니었겠나.

노무현으로서는 사실 망신이었다. 참기 어려

웠을 것이다. 차라리 전화를 걸지 말 것을... 검찰 수사 독립을 그토록 강조해 온 마당에 검찰총 장에게 내키지 않는 전화를 했다가 거절당한 것 에 오죽 자존심이 상했겠는가. 여기에 노무현 특유의 승부수가 던져진다. 노무현은 참모들의 반 대에도 불구하고 원고 없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국민투표로 심판받겠다고 했다.

“최도술은 20년 가까이 저를 보좌해 왔고... 그 에게 잘못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합니다. 아울러 책임지려 합니다. ...수사 결과가 무엇이든 축적된 국민의 불신에 대해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회견 5일 뒤, 최도술은 1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 속된다. SK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을 안겼다. 검찰 개혁의 동력도 크게 떨어졌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 보장은 외부의 간섭과 개입의 차단에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을 검찰 자신에게 맡긴 형 국이 돼버렸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검찰 개혁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실패인가 성공인가.

장담했던 검찰 개혁 실패 자인?

노무현의 검찰 개혁은 ‘양날의 칼’이었다. 검찰 수사의 독립은 ‘노무현 표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 다. 본인의 정치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일관되게 추진한 뚜렷한 업적이었다.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가 나라종금 사건의 재수사였다. 한광옥·김홍 일, 게다가 측근 안희정까지 걸려 있는 민감한 사 건이었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조은석의 회고를 들어 보자.

“나라종금 수사로 자신감을 가졌다는 총장의 말을 전해 들었다. 권력 수사임에도 그렇게 된 없 이 수사해 본 적이 없었다. 나라종금(안희정), 선 안문(이광재), 굿모닝시티(신계륜) 등, 내가 한 사 건들이 죄다 현 권력 실세들이 얽힌 사건들이었 는데...”

수사 중립을 보장하겠다는 노무현의 검찰 개혁 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셈이었다. 하지만 유시민 이 쓴 책(『운명이다』 272-276쪽)에서는 ‘검찰 개혁의 실패’를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의 선 의를 악용해 오히려 부당한 특권을 강화했을 뿐 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의 제도 적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으로 검찰 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문재인도 ‘실패’를 시 인했다. “대검 중수부를 없애고 싶었으나 대선자금 수수에 대한 보복이라는 오해를 받을까 봐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운명』 240쪽).

노무현의 검찰 개혁은 박근혜 정권을 건너뛰어 서 문재인 정권에 와서 되살아난다. 그러나 대단 한 아이러니다. 문재인 또한 검찰을 통한 적폐 청 산에 매달리면서 정작 검찰 개혁은 뒷전에 밀려 났다. 결과적으로 검찰 권력을 더 강화해 주고 말 았다. 심지어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다음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으니 말이다.

이정규·손병수·박유미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시 설

윤 대통령, 위헌적 계엄의 정치적·법적 책임 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한밤중에 일으킨 비상계엄 소동은 6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한국 정치사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 윤 대통령은 1979년 이후 사라졌던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을 45년 만에 현실 세계로 소환했다. 완전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국민은 불가역적으로 확립된 줄 알았던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와 무력감을 느꼈다. 헌법 77조는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했다. 계엄은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삼권분립을 정지시키는 초월적 권한이어서 나라의 존망이 걸린 비상사태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군 투입해 국회 의사 방해 행위는 내란죄 가능성
정상적 국정 운영 불가능...여야, 현명한 선택을**

면 지금 상황이 과연 계엄이 필요한 정도의 국가적 위기인가. 국민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여당 지도부를 만나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폭거를 하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자신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는 그제 답사에서 민주당의 잇단 탄핵(추진)을 가리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예산 단독처리를 거론하며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회에서 폭주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벌인 행동들은 어디까지나 헌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민주당이 무력 쿠데타를 시도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대통령의 대응도 정치의 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옳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거대 야당을 탄생시킨 민의를 존중해야 당과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는 게 순리다. 정치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중단시키려 한 것은 터무니없는 독재적 발상이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2024년 한국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한 것은 계엄의 권한을 넘어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해석까지 가능하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헌법 규정상 대통령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해 특별조치를 할 수 있을 뿐,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선 손쓸 수 없게 돼 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주요 참모들과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측근 몇몇하고만 상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3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뜻이 담겼다 할 것이다. 비상계엄을 사전 심의한 국무회의에서도 대다수

장관이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이 밀어붙였다고 한다. 장관과 참모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이 과연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으로 공식사퇴도 뒤숭숭하다. 무엇보다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대통령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용현 장관 등 계엄 관련자 문책도 필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어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해 오는 7일께 의결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여론 일각에선 탄핵 대신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어찌 됐건 계엄 선포 이전과 같은 국정 운영은 불가능해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된 만큼 여야가 협의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계엄 쇼크에 시장 휘청... 경제 흔들림 없도록 만전 기해야

‘6시간 비상계엄’이 경제와 시장에 몰고 온 후폭풍은 거셌다.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국내 증시에서 4243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던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44%, 1.98%씩 하락했다. 달러당 1446원까지 밀렸던 원화가치는 1415원대 수준에서 움직였다.

시장은 혼돈 그 자체였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7시30분까지 증시 개장 여부를 고심했다.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천명하고, 50조원에 이르는 시장 안정 자금을 동원해 방어선을 구축했다.

‘6시간 비상계엄’ 뒤흔치며 수습조원의 돈을 쏟아 붓게 된 것이다.

계엄의 후폭풍은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톱’이 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내수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 부진으로 수출도 힘을 잃어 가며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도 있다.

계엄 사태가 투자처로서 한국을 꺼리게 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일단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하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관계자가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별 영향이 없다”고 하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고무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대의 여론도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외환 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과 가계 등 경제 주체도 각자의 자리에서 경제 일상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동계도 정치 투쟁을 위한 총파업보다는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하면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일 수 있다”는 무디스의 지적을 되새겨야 할 때다.

‘서울의 밤’ 6시간 계엄 희비극

장세정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이건 아니다. 아무리 야당 하는 짓이 미워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이건 아니다. 상대가 심한 욕설을 내뱉는다고 참지 못하고 버럭 흥분해 냐다 주먹을 휘두르면 방금까지 피해자로 여겨지던 사람이 일순간 가해자로 바뀐다.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12·3비상계엄’ 선포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 발동 요건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전시·사변도 아닌데 한밤중에 계엄군이 국회로 밀고 들어간 것은 불법이라 비판한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쉽게 제한하려는 시도엔 동의하기 어렵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들인 영상 업무를 중단하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전후 독재정권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고 꼬집었다. 오죽하면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인 중국에서 “지난해 상영한 한국 영화 ‘서울의 밤’ 현실판 같다”는 비아냥이 나올까. 주요 7개국(G7) 가입까지 기대되던 선진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 자존감이 하룻밤에 비민주 저개발국 수준으로 추락했다. 특특히 나라를 망신시킨 책임이 무겁다.

9수 짝 늦깎이로 사시를 통과해 검찰 총장까지 역임한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설마 법을 몰랐을까. 총암고 동문 연발 송년회도 아닐 텐데, 윤 대통령을 필두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총암고 동문 3총사’가 둘러앉아 국가 중대사를 졸속으로 다뤘다는 말인가. 그나마 정무적 과장을 판단해 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논의에서 벗어나 있었다니 어이가 없다. 5공화국 시절도 아닌데 왜 무책임하게 국무위원들은 계엄 들러리를 섰나.

정말 왜 그랬을까. ‘서울의 밤’에 벌어진 사태를 찬찬히 복기하면서,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는 대통령의 좁고 빗나간 현실 인식을 가장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일 밤 10시23분 긴급 대국민 담화 발표부터 4일 새벽 4시27분 계엄 해제 발표까지 약 여섯 시간. 윤 대통령은

자투 비장한 표정이었다. 야당의 고위 공직자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에 따른 행정부 마비 시도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가기관을 교란해 내란을 획책한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직격했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중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할 때는 얼굴에 노기가 어렸다.

물론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려고 국회를 볼모로 삼는 야당의 극한 정쟁은 비판받아도 싸다. 일부 중북 세력이 대한민국의 질서와 가치를 위협해 온 것도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물이 뜨거워지고 있었지만 아직 끓어 넘친 것은 아닌데, 갑작기 뱀비늘 갠 형국이다.

비상계엄 선언으로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려는 대통령의 조급한 해법도 틀렸다. 헌법에 삼권분립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존중해야 마땅하다. 108석의 국회 소수

**국격 떨어뜨린 위헌적 계엄령
정치위기 탈출 ‘꼼수’ 의심받아
자기희생의 리더십 보여줄 때**

당이 배출한 대통령 눈에는 국정 파행의 위기감이 컸겠지만, 국회 전체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매도한 것은 의회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뭔가 다른 의도와 계산이 있는 것 아닌지 꼼수를 의심한다. ‘김건희 특검’ 압력이 임계점에 육박하고, 채상병 사건의 대통령실 위압 의혹은 여야가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고, 명태균 연루 의혹도 일축축발의 상황이었다. 모두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칼이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야당에 떠넘겨 정치적 탈출구를 모색하려고 이 야단법석을 일으켰다는 의심이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남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자기희생의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라면 국민이 원하는 가장 소중한 것도 내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높은 자리든지, 어썩든 사람이든지. 계엄 선포라는 날카로운 부메랑을 확 내던진 윤 대통령에게 돌아온 업보(業報)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제작·배부처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경제신문,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LOTTE PLAZA market



우수농산식품전

DEC. 05 ~ DEC. 19, 2024



34⁹⁹

28⁹⁹

KOREAN PEAR
한국 신고배(9-10'S)



5⁹⁹

3⁹⁹
3LB

SLICED RICE CAKE
떡국떡



7⁹⁹

2for 5⁰⁰
360G

COOKED FROZEN BOILED CORN
강원도 고랭지 삶은 찹 옥수수



14⁹⁹

7⁹⁹

KOREAN PEAR
한국 신고배(2'S)



3⁷⁹

2⁴⁹
1.43LB

RICE CAKE STICKS
떡볶이떡



10⁹⁹

6⁹⁹
1KG

HONEY CITRON & GINGER TEA
유자차 & 생강차



2²⁹ ea

2for 3⁰⁰
52G

CHOCOLATE&CHEESE CAKE&STRAWBERRY CUBE
초코무스&치즈케이크&스트로베리 큐브



2⁹⁹

1⁹⁹
75G

POPCORN
브라운 치즈 & 명란마요 팝콘



7⁹⁹

4⁹⁹
6x350ML

APPLE MINT SPARKLING ZERO
애플민트 스파클링 제로



7⁹⁹

4⁹⁹
6x350ML

RAINBOW SHERBET SPARKLING ZERO
레인보우 샤베트 스파클링 제로



10⁹⁹

7⁹⁹
1KG

POTATO STARCH
감자전분



4⁹⁹

2⁹⁹
4X5X65ML

YOGURT FLAVORED DRINK
농협 요구르트



6⁹⁹

4⁴⁹
2.2LB

FRESH CHOPPED & UDON NOODLE
생칼국수 & 생우동짜짜면



34⁹⁹

24⁹⁹
5LB

RED PEPPER POWDER
김치용 굵은 고춧가루

“이 외에도 다양한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DEC. 5th - DEC. 12th, 2024



역시~ 참치 **DONG WON** 대표 브랜드

동원참치 실속기획

A PRACTICAL PROMOTION FROM DONGWON TUNA, THE LEADING TUNA BRAND!

6 Canned Tuna
Light Standard
(살코기)



2 Canned Tuna
Hot Pepper
(고추)



FREE
Container
(무료 반찬용기)

*8개의 참치캔이 반찬용기에
들어있을 때의 이미지입니다.
현재 그림과 같이 총복되지는 않습니다.

\$15.99

동원
살코기 참치 6캔
+ 고추참치 2캔
+ 반찬용기(무료 사은품)
6 Tuna Cans (Chunk)
+ 2 Hot Pepper Tuna Cans +
Container (FREE Gift)

\$8.99

8X3.2 OZ

편집 중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罄진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3821 Wilbur St.
Richmond, VA 23234

Sterling, VA
32 Paganini Rd. S.
Sterling, VA 20155

Centreville, VA
1800 Centreville Oaks Dr.
Centreville, VA 20121

Charlottesville, VA
13800 Mainpost Dr.
Charlottesville, VA 20151

Arlingdale, VA
5304 Hot Poppy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2017 Arundel Mall Plaza
Arlington, VA 20141

Fleming, VA
430 Eden Street
Hemlock, VA 20170

Ellicott City, MD
382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Catonsville, MD
80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126

Rockville, MD
1902 Vein &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December 5, 2024 C

빙·난방 재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한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당한 정당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정기 점검, 빠른 대처가 관건

주택 관리 · 보수 이렇게
홈오너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 일은 단연 주택 수리 및 관리다. 수도가 새거나 배수구가 막히는 등 간단한 문제라고 해도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 방치하면 향후 문제가 커져 더 큰 불편과 수리 비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소 간단한 수리 방법을 알아두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비용과 시간적인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홈오너들이 평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주택 시설을 비롯해 문제 발생 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수도
수도에서 물이 새는 문제는 물 낭비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수도 요금 증가와 함께 주택 내 다른 배관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어 결코 무시코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수도를 점검하고 문제 발견 시 즉시 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누수 현상은 수도 패킹이나 카트리지를 교체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변기
변기에서 물이 계속 흐르거나 막히는 문제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이때 변기 내부의 플래퍼 밸브(Flapper Valve)를 점검해 문제가 있을 시 이를 교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만약 변기가 막혔을 때는 플러저(plunger)를 사용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변기 관리는 무엇보다 주기적으로 배관세척제로 청소해 주면 배관 내 물때나 찌꺼기까지 제거할 수 있어 일



향후 더 큰 비용 및 시간 손실을 방지하려면 정기 점검 및 간단한 집 수리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 [unsplash.com 제공]

변기, 배수구는 전용클리너 사용할 만 벽, 지붕 곰팡이는 발견 즉시 제거해야

석이조.
▶배수구
배수구가 막히는 원인은 주로 음식물 찌꺼기나 머리카락 등 이물질로 인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수구 청소 전용 도구나 배수구 클리너를 사용하면 된다. 만약 막힘이 심한 경우에는 배수구 전용 클리너(drain cleaner)를 사용하여 배관 내부를 청소하면 되는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전문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

▶전기
전기 스위치나 콘센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단순히 사용의 불편을

넘어 화재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교체 또는 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 배선 문제를 점검 또는 수리하기 위해서는 전기 차단기를 내린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스위치나 콘센트를 교체하면 된다. 그러나 일견 간단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만약 경험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벽 균열
벽에 생긴 작은 구멍이나 균열은 미관상뿐만 아니라 방치할 경우 구조적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멍과 균열은 주로 가구 이동 시 발생하는데 간단

한 도구를 이용하면 이를 손쉽게 보수할 수 있다. 우선 벽면 홈 또는 구멍을 메울 때 사용하는 페이스트인 스파클(Spackle)이나 퍼티(Putty)를 구입해 이를 이용해 홈을 메우고 샌딩 작업을 통해 표면을 고르게 한 뒤 페인트를 칠해 마무리하면 된다. 이런 제품들은 홈 디포나 아마존 등에서 10달러 내외에 구입 가능하다.

▶창문·문 틈새
창문이나 문 틈새를 통한 공기 유출은 에너지 효율을 떨어뜨려 난방 비용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문 또는 문 틈새를 웨더스트리핑(weather stripping)이나 실리콘 실란트(silicone sealant) 등을 이용해 메워주면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이는 에너지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주형 객원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산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부동산 학교
수업료: \$250 (교재비: \$100)
www.부동산학교.com
6주 속성반
www.뉴스타부동산.com
www.뉴스타부동산.com
www.뉴스타부동산.com
www.뉴스타부동산.com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1 \$1,15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피어팩스 크로스 스트리트에 있는 멋진 집. 업그레이드	2 \$1,30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백로우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	3 \$85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2+1, 차고 2 넓고 이쁜 집, 마스터백, 넓은 뒷뜰	1 \$630,000 Sykesville 타운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2년된 새 타운홈, 아주 멋진 고급, 잘 꾸민으로	2 \$985,000 N. Potomac 싱글홈 방 6, 화장실 3+1, 차고 2 집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마스터백	1 \$1,200,000 워싱턴 디씨 SE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넓고 멋진 스타일의 고급 타운 하우스
4 \$1,900,000 페어팩스 새 싱글 방 4, 화장실 3+1, 차고 2, 만화아 조형학, 모던하게 지은 멋진 집	5 \$2,300,000 옥톤 새 싱글 방 5, 화장실 4+1, 차고 2 1.8 에이커의 넓은땅에 지어진 새 집, 옥톤 HS	6 \$2,200,000 맥클린 싱글 방 4, 화장실 4, 차고 2, 모던한 스타일로 지어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린 HS	3 \$1,025,000 N. Potomac 싱글홈 방 5, 화장실 3+2, 차고 2 고급스러운 벽돌집, 넓은 마스터백	4 \$1,32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좋은 위치에 있는 고급 주택, 넓고 고급스러운 마스터백	2 \$1,150,000 워싱턴 디씨 NW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고급 타운 하우스

급락한 2차전지 ... 숨은 머스크 수혜주 있다?

증시 주도주(株) 복귀는 요원해진 걸까. 국내 2차전지(배터리) 업체 주가 얘기다. 지난해 6월 61만원대였던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1년 반 만에 40만원 아래로 밀렸고, 삼성SDI는 같은 기간 60% 넘게 급락했다. 가뜰이나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허덕이는 국면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까지 겹쳐 투자 심리에 더 큰 타격을 받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줄곧 "재집권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별렀다. 미국에서 전기차·2차전지를 만들면 그 기업에 세액 공제해 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없애겠다는 거다. 배터리 업계엔 재앙이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인수위원회가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기차·2차전지 관련 발언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육성정책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보조금만 퍼주고 있다 (7월 16일 블룸버그 인터뷰)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명령을 취소하겠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신중 녹색 사기(Green New Scam)다 (7월 18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는) 터무니없다. 전기차는 충분히 멀리 가지 못하고 매우 비싸다.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을 없애는 것을 고려하겠다 (8월 19일 로이터 인터뷰)

자료: 외신 종합



그래픽=김호준

투자자는 혼란스럽다. 2차전지 주식이 더 하락할 거란 걱정이 크지만 지금 주식을 팔았다가 그 뒤에 주가가 오를까 봐 쉽사리 매도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 전기차 시장을 이끄는 테슬라 주가가 뛰는 것도 '비빌 언덕'이다. 시차가 있을 뿐, 좀 더 묵혀두면 결국 테슬라 주가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품는 식이다.

'트럼프 2기'를 앞둔 지금, 전기차·2차전지 주식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전문가 3명에게 물었다. 2차전지 분야 베테랑 애널리스트인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장정훈 삼성증권 이사, 펀드 매니저인 이정욱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장이 그들이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트럼프가 IRA를 폐지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를지 ▶2차전지 종목에 투자해도 좋을지 등에 대해선 온도 차를 보였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전기차·2차전지 시장은 더 암울해지는 건가.

장정훈 이사: 바이든 정부와 비교하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전기차에 부정적인 입장인 데다, 바이든 대통령의 IRA 정책을 '녹색 사기(Green Scam)'로 보고 있기 때문에, 취임하면 다양한 형태로 IRA 정책 효과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미국 시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을 미국 기업이 아닌 다른 국가 기업에 보조금으로 퍼준다고 보기 때문에 AMPC 조항은 트럼프가 어떤 형태로든 건드릴 것으로 본다.

한병화 이사: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 전기차 지원의 기본법인 IRA 자체를 폐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했다지만 의회 승인을 받기 어렵다. 우선 상원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차단하려면 60석(전체 100석)이 필요한데 그에 못 미쳤다. 예산조정권을 써서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도 있지만, 이걸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 IRA를

폐지하는데 조정권을 쓰면 다른 데 못 쓰는 거다. 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18명과 의장이 IRA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힌 상황이라 표결도 쉽지 않다. IRA 보조금만 살아있다면 소비자 유인책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다만 세부사항은 건드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업체가 일부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외조항 같은 것은 폐지될 수 있겠다.

이정욱 부장: 생각만큼 타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을 '스윕(sweep·싹쓸이)'했다 해도 IRA 폐지가 현실화하긴 쉽지 않을 거다. 트럼프는 재선이다. 초선과 달리 임기 1~2년 지나면 레임덕(권력 누수)이 와서 공약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입장에서 차기 대선도 준비해야 한다. IRA는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현지 자국민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폐지하기 어려울 거다.

-업황은 계속 안 좋을까.

장정훈: 전기차 수요가 줄어든 건 유럽에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미국에선 세제 혜택을 주는 차량 범위를 좁혔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이 바뀌지 않고 있어 당분간 캐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한병화: 심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올해 미국 전기차 업황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압도적 1위 업체인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7%가량 역성장했다. 최근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내년 전기차 판매량이 저가 차량과 자율주행차 덕분에 20~3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테슬라 전기차의 내년 미국 판매가 12% 증가하고, 미국 전체적으로도 (해외 브랜드까지 포함한) 전기차 판매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가 성장세로 돌아서면 미국 전기차 업황도 턱어라운드(개선)할 거다. 유럽도 내년부터 시작될 이산화탄소(CO2) 규제 강화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로 전환

될 거다.

이정욱: 그동안 업황 자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져도 기저 효과가 나타난다.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업황이 예전처럼 확 좋아질 느낌은 아니다. 한국내 배터리 업체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받아 성장하는 것일 뿐, 예전처럼 고마진은 쉽지 않다. 전기차도 초기엔 비싼 값을 받았지만, 이제 Q(판매량)가 느니까 매출이 증가하는 거지, P(가격)는 계속 낮아지는 상태다.

-한국내 2차전지 종목 주가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나. 투자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장정훈: 업황과 별개로 내년 트럼프 취임 전까지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확실하게 가늠하기 어렵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정책 불확실성 국면에 들어가는 셈이다. 따라서 리스크(위험)를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트럼프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20일 이후 주식을 사는 걸 고민해 볼 것을 권한다 /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질로우 프라이머 에이전트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김경아의 독점 COMING SOON LIST!!

1. 윗브리지 타운홈
2.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3.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4. 매나사스 타운홈
5. 버크 싱글홈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I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15년 만의 강남 그린벨트 아파트, 30평대 12억 넘을 수도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부동산전문기자



2010년 말 서울 강남에 '반값' 아파트가 분양했다. 서울 강남구 강남지구와 서초구 서초지구 내 공공분양 단지들이었다. 분양가가 3.3㎡(공급면적 기준)당 1000만~1100만원이었다. 정부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분양가가 3억7100만원이던 서초지구 전용 84㎡(서초힐스)가 14년이 지난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최고 15억 5000만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당시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 추진 단지, 분양가 규제를 받아 가격이 낮은 상한제 단지를 훨씬 능가하는 상승률이다. 2009년 입주한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가 1.7배 상승,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 1.6배, 강남 첫 재건축 상한제 단지인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옛 진달래) 2배 정도다.

분양 이후 서초구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44%, 한국부동산원)의 7배 정도 치솟은 이 단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위에 세워진 이른바 'GB 아파트'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한 보금자리지구에 들어선 '보금자리주택'이다. 강남지구를 비롯해 하남시 미사지구 등의 수도권 GB 아파트 몸값은 이후 빠르게 뛰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이전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급등한 집값에 지쳐있던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은 획기적이고 파격적이었다"고 말했다.

300% 넘는 보금자리주택 상승률

지난 13일 정부가 서울과 인근 수도권 3곳(고양·의왕·의정부)의 그린벨트(688만㎡)를 해제해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

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등 일대 서리풀 지구는 강남권에 15년만의 그린벨트 해제 지구다. 서초지구에 뒤이어 개발된 보금자리지구인 내곡지구를 둘러싸고 있다. 규모(221만㎡)가 강남권 4개 보금자리지구(288만㎡)의 75%다. 이들 신규 택지가 보금자리지구의 '모토' 신화를 재현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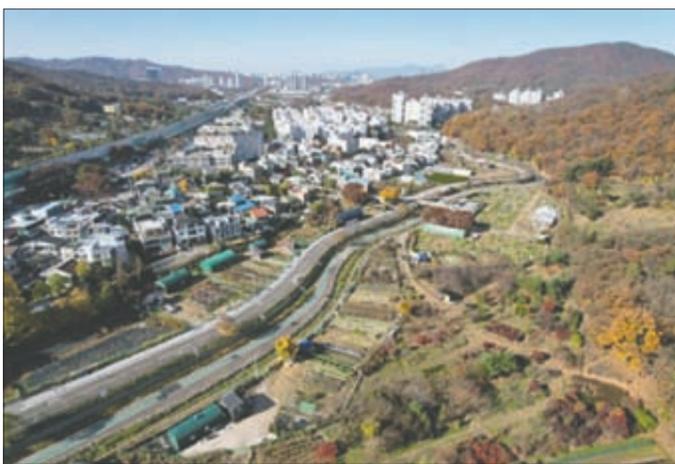
보금자리지구가 공공택지여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상한제(택지비+건축비)를 적용받았다. 저렴한 분양가의 열쇠는 택지비 인하였다. 택지비가 택지 개발에 들어간 실제 비용인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전용 60㎡ 이하 조성원가 95%, 65~85㎡ 110%였다. 보금자리지구가 개발이 제한돼 땅값이 싸다 보니 보상비가 적게 들어가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었다.

보금자리지구의 용적률 상한과 녹지공간 축소도 분양가 인하에 도움이 됐다.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이 올라가면 필요한 택지비분이 줄어 그만큼 택지비가 적다. 녹지율이 낮으면 민간 등에 팔 수 있는 택지가 늘어나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거 쾌적성을 다소 희생하면서 분양가를 낮춘 셈이다.

하지만 지금은 GB 아파트에서 보금자리주택만큼 저렴한 분양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택지비 기준이 조성원가가 아니라 시세와 비슷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4년 전용 60~85㎡ 용지, 2015년 전용 60㎡ 이하 용지의 택지비 기준도 전용 85㎡ 초과에 적용하던 감정평가금액으로 높였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건축비보다 3배 더 오른 택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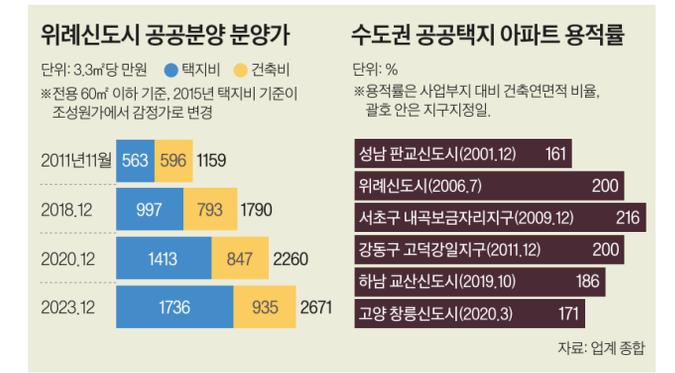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조성원가와 감정평가금액 간 차이가 크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하남시에 걸쳐 개발된 위례신도시의 조성원가가 3.3㎡당 1100만원이다. 지난해 말 분양한 공공분양 택지비 감정은 2배가 넘는



정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모습. 15년 전 이명박 정부가 강남에 개발한 4개 보금자리지구(288만㎡)의 4분의 3 크기인 221만㎡다. [연합뉴스]

수도권 그린벨트 5만 가구 공급 MB 보금자리주택은 시세 절반 택지비 기준 바뀌어 분양가 뚝뚝 박상우 "5년 안에 첫 분양할 것"

2450만원이었다. 2011년 11월 3.3㎡당 1159만원이던 위례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분양가가 지난해 말 2671만원으로 130% 상승했다. 택지비가 209% 오르며 분양가를 끌어올렸다. 건축비 상승률은 60%다.



업계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서리풀 지구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국민주택 규모인 30평대가 고가주택 기준인 12억원을 넘길 수 있다. 지난 9월 분양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분양가가 3.3㎡당 3500만원이었다.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그대로 산정했으면 3.3㎡당 4000만원까지 나왔을 텐데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조정된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 단지 옆 아파트 시세가 3.3㎡당 5300만원 정도다. 서리풀지구 옆 내곡지구 시세가 3.3㎡당 5800만원 선이다.

정부도 고분양가를 우려해 용적률

을 250%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 보금자리주택지구 용적률이 210% 정도다. 용적률이 210%에서 250%로 올라가면 3.3㎡당 4000만원인 분양가가 3500만원으로 내려간다. 용적률 상향은 건축 연면적을 늘려 주택공급 확대 효과도 있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으로 서리풀지구 크기가 4개 보금자리지구보다 25% 작아도 주택공급량은 1000가구 더 많은 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금자리지구 2년 반 만에 분양

분양가와 함께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빠른 공급이다. 대규모 택지 공급은 정부 계획보다 늦어지기 일쑤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총 34곳 중 입주가 완료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입주까지 소요기간이 8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곳이 3분의 2(23곳)였다. 2018년 말 발표된 3기 신도시가 6년이 지나야 지난 9월 인천 계양지구에서 첫 분양이 이뤄졌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지연됐다.

정부는 이번 신규 택지의 개발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해 당사자가 많고 복잡한 보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구 지정 전 보상 작업에 먼저 들어가 지구계획도 수립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첫 분양이 5년 후(2029년 말)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도시보다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해도 보금자리지구 시범지구의 경우 대상지 발표(2009년 5월)에서 첫 분양까지 1년 반~2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 서리풀지구의 2.5배가 넘는 하남 미사지구(568만㎡)가 2년 반이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인허가 부담 등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번 신규 택지 개발의 '속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 지금 매수나 종목 추천은 적절치 못하다.

한병화: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본다. 내년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당선된 만큼 당분간 심리적 요인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주가가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고려할 만하다. 이미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지금 팔 타이밍은 아니란 거다. 물론 내년엔 트럼프가 취임한 뒤 어떤 발언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실행으로 옮길지를 지켜봐야 한다. 매수 종목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시가총액 상위주가 괜찮다.

이정욱: 트럼프 당선 이후 2차전지 주가가 놀리고 있지만, 'IRA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흐름이 나오면서 괜찮아질 것으로 본다. IRA를 (폐지가 아니라) 축소한다는 얘지만 나와도 주가는 반등할 거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개인 투자자가 좋아할 만한 주식

이 될 수 있겠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우주선용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해서다. 이 종목을 제외하고, 투자한 뒤 얼마나 빨리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면, 2차전지보다 조선·방위산업·우주항공 같은 트럼프 수혜주를 사는 게 유리하다. 주식 보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빨리 손절매하고 조선, 방산주값이 상승 가능성이 큰 종목을 사는 게 낫고 본다.

앞으로 주가를 끌어 올릴 재료가 있을까.

장정훈: 주가를 올리려면 정책 불확실성 해소, 전방 시장인 전기차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요처인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수요가 성장하는 그림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은 트럼프 당선으로 강력한 지원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캐즘을 극복하려면 배터리 가격이 현저히 내려가 소비자 입장에서 내연

기관 대비 전기차 구매의 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 다만 단기간에 배터리 가격을 낮추긴 어렵다.

한병화: 무엇보다 트럼프가 IRA 정책의 큰 틀을 바꾸기 어려울 거라는 신호가 감지돼야 한다.

이정욱: 사실 정말 타격이 큰 이슈는 IRA 폐지 정도밖에 없다. 테슬라가 트럼프 테마주로 엮여 계속 주가가 오를 경우 2차전지주도 함께 따라갈 수 있겠다. **황의영 기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매체 / 렌트	금액	설명	주소	기간	세입자
주거	McLean, VA \$900,000	*계약 후 10일내 세입연도 완료 현재 3년 렌트 (\$4,25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주거	Fairfax, VA \$3,500	Mantua ES, Frost MS, Woodson HS 권 싱글하우스 렌트. 부엌, 화장실 upgrade 된 집. 10월 1일 입주 가능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주거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주거	세탁소 (MD) \$300K	MD, 코로니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사업체			1*02 Abbey Way, McLean, VA	3년	교인
사업체			22*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2년	교인
사업체			7*32 Old Dominion Rd, McLean, VA	2+1년	국제기구
사업체			1*89 Dawson St, Vienna, VA	2년	교인
사업체			2*02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사업체			7*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3년	주재원
사업체			1*40 Kensington Rd, McLean, VA	1년	주재원
사업체			7*51 Tremayne Pl, McLean, VA	1+1년	주재원
사업체			411* 11th St, Arlington, VA	2년	주재원
사업체			1*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3년	국제기구
사업체			2*69 Oakborough Sq, Oakton, VA	18개월	주재원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홈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정심정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703-259-5617, 410-241-2520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학무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에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파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1기 신도시 33년만에 재건축 첫발 ... 매년 2만~3만가구 추가

일산·평촌·중동 등 3.6만가구 선정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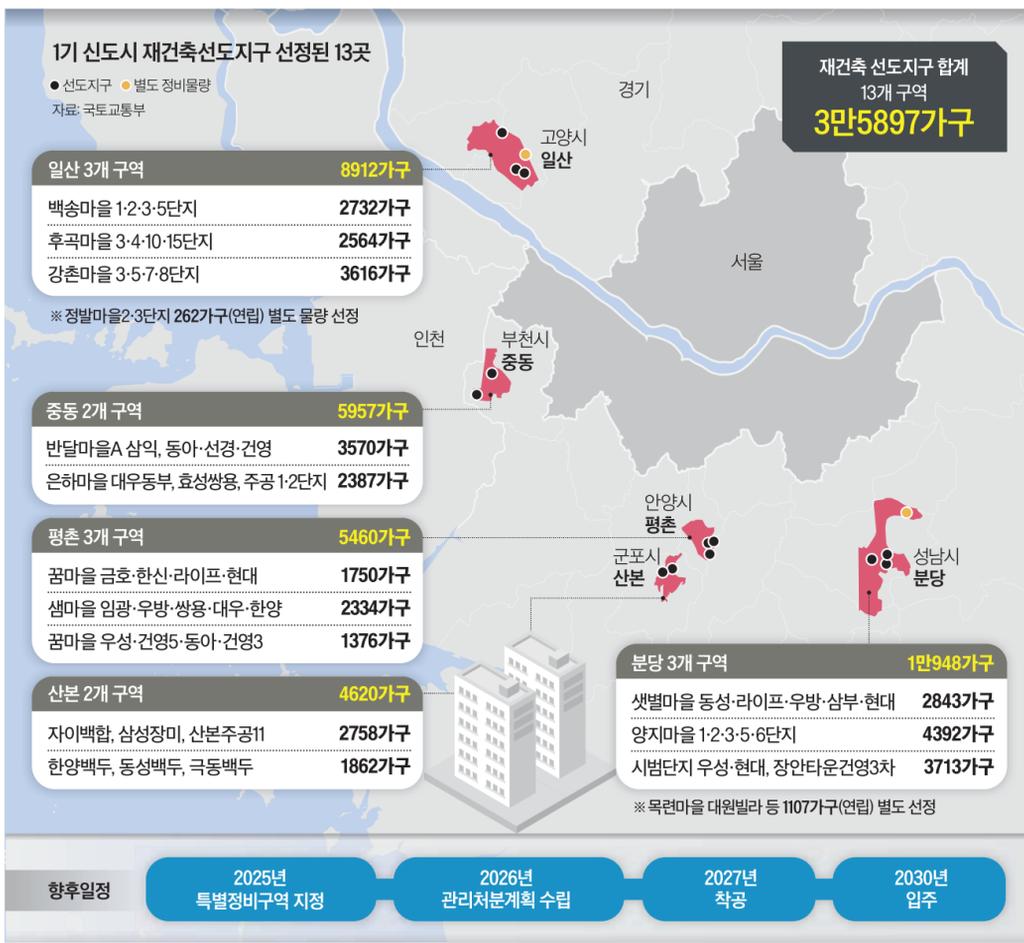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의 '첫 타자'가 될 총 3만6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가 27일 공개됐다. 분당에서 양지마을·셋별마을·시범단지 우성 등 1만948가구가 선정되는 등 5개 신도시에서 총 13개 구역 3만5897가구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성남시·고양시·안양시·부천시·군포시 등은 이날이 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1991년 최초 입주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33년 만에 본격적으로 첫발을 떴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통상 10~15년 걸리는 재건축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하에 6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또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에서 2만~3만 가구 규모의 재건축 대상 단지를 매년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39만2000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전체를 한꺼번에 재건축할 수 없으니,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촉박한 재건축 일정, 공공기여·분담금 등에 따른 주민 반발, 이주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당초 국토부는 선도지구 기준 물량으로 총 2만6000가구를 제시했고, 지자체당 1~2구역 추가 시 최대 3만9000



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로 준하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는 내년부터 재건축의 첫 단추가 될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다만 재건축 진행엔 변수가 워낙 많아 많은 난관도 예상된다. 당장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를 두고 지자체와 주민 간 의견이 갈라질 수 있고, 주민 분담금이 구체적으로 책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선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소지도 있다. 정부는 선도지구가 대부분 통합재건축으로 진행돼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금융 지원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단지들은 "재건축이 또 10년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크다. 실제 분당의 경우 단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고 한다. 벌써 일부 단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아닌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도별 정비물량 내에서 2차·3차 재건축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1기 신도시 연간 정비 물량을 설정해 뒀는데, 매년 2만~3만 가구를 재건축 대상 단지로 승인해 가겠다는 것이다.

또 대략적인 재건축 순서를 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번엔 떨어졌지만 주민동의율이 50%가 넘는 구역은 2026~2030년 내 특별정비계획을 마치도록 하고, 주민동의율 50% 미만 구역은 2031~2034년에 진행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3차 재건축 단지로 선정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주민 간 의견 일치가 잘 되면 사업 속도가 선도지구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민정 기자

가구가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뚜껑을 열어보니 최대치에 가까운 약 3만6000가구를 선정했다.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뜨거웠던 분당은 수내동 양지마을1단지 금호, 2단지 청구, 3·5단지 금호한양, 5단지 한양, 6단지 금호청구, 한양아파트(4392가구)와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현대, 장안타운건영3차 아파트(3713가구), 분당동 셋별마을 동성·라이프·우방·삼부·현대(2843가구) 등 총 3개 구역 1

만948가구가 재건축 첫 타자가 됐다.

일산 역시 3개 구역 8912가구가 선정됐는데, 백송마을1·2·3·5단지(2732가구), 후곡마을3·4·10·15단지(2564가구), 강촌마을3·5·7·8단지(3616가구) 등이다.

평촌도 꿈마을금호·한신·라이프·현대(1750가구), 샘마을임광·우방·쌍용·대우·한양(2334가구), 꿈마을우성·건영5·동아·건영3(1376가구) 등 3개 구역 5460가구가 낙점됐다.

중동은 반달마을A 삼익, 동아·선경·건영(3570가구), 은하마을 대우동부·효성쌍용·주공 1단지·2단지·대우 동부(2387가구) 등 2개 구역 5957가구가, 산본은 자이백합·삼성장미·산본주공11(2758가구), 한양·동성·극동백두(1862가구) 등 2개 구역 462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분당·일산의 1400가구를 별도 정비물

▶ 1면 '주택관리'에서 이어집니다

따라서 평소 창문과 문의 단열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틈새가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는 것이 좋다.

▶ 페인트

벽이나 천장의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얼룩이 생기면 미관상 좋지 않다.

이때는 다시 페인트를 칠하면 되는데 일단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연마지나 전동 샌더(electric sander)를 이용해 매끄럽게 다듬은 후 부식과 습기를 막아주는 프라이머(primer)를 바르고 기존 색상과 일치하는 페인트로 덧칠하면 깔끔해진다. 이때 만약 곰팡이나 습기 등으로 인해 페인트가 손상된 경우라면 페인트 전 곰팡이를 제거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지붕

지붕은 작은 균열이라도 오래 방치하면 이는 더 큰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지붕에서 물이 새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방지할 시 향후 수리비가 더 들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붕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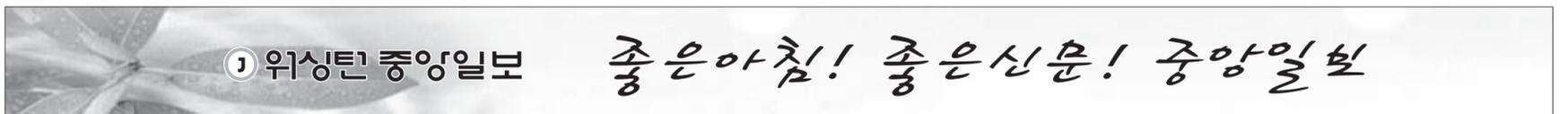
되면 즉시 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업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으로 지붕을 점검,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 보일러

물탱크나 보일러의 누수나 부식 역시 흡오의 골칫거리 중 하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

고 문제 발생 시 전문업체에 의뢰해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특히 물탱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속 보호에 효과적인 방청제(rust inhibitor)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방청제는 스프레이 타입이어서 사용하기 편리한데 흙피나 아마존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가격은 8~15달러 선.

이주현 객원기자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12월 **HOT** 리스팅



독점 매물 \$49만불

옥스힐/매릴랜드
MGM 카지노에서 10분거리위치한 싱글홀,
방4개 화 3, 차고 1. 모두 수리된집

17년 부동산 경력의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선정
16년 연속 탑 에이전트의 풍부한 부동산 경험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촉을 늘 감지하는 비키리 부동산으로 전화주세요.
부동산 투자 실수가 없습니다.
셀러, 임대주택 렌트 - 모든 온라인매체에 광고 노출을 제일
많이하며, 빠른시일내에 매매가 성사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바이어 대기 - 센터빌, 페어팩스에 위치한 깨끗한 콘도 매물 찾습니다.



독점 매물 \$68만불

우드브릿지 싱글홀
2005년 지어진 깨끗하고 잘관리된집
방4개 화 4.5 차고 2 렌트도 가능



독점 매물 \$57만불

알링톤 콘도
방2/화 2 모두 수리된집, Clarendon
메트로역에서 1 마일, 펜타곤과 인접집



디씨 콘도 렌트 , 스튜디오 \$2100 어메리칸 대학, 조지타운대학, 조지와싱턴 대 차로 10분거리

스털링 2024년 지어진 새 콘도 \$2800 방2 + 화2 즉시 입주 가능

덤프리 타운하우스 \$2350 방3, 화2.5 , 즉시입주 가능

우드브리지 콘도 \$2800 2005년 지어진 새 콘도 방3 + 화2, 차고 1 게이트 커뮤니티 넓고, 밝은 깨끗한집, 즉시 입주가능

타이슨코너에 인접한 타운하우스 비엔나 \$3300 방3+ 화3.5, 지하실 넓고 작은 뒷마당겸비, 즉시입주가능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대표/악착같은 부동산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제이슨성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임대보증금 반환

미납 렌트비·파손 수리비 등 보증금서 차감 임대 종료 후 양측 에이전트 함께 인스펙션

임대보증금, 즉 시큐리티 디파짓은 거주 부동산 산국의 표준리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테넌트가 입주 시 내는 보증금은 집주인 혹은 브로커가 무이자로 보관, 관리하며, 적절한 이유가 있을 경우 테넌트가 입주하는 동안 내지 못한 렌트비(연체 페널티와 체크 바운스 페널티 등 포함),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이 아닌 테넌트의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 잃어버린 키 등과 손실 물품의 대체 구매비용, 이사 후 청소비, 카페 샴푸 비용 등을 차감할 수 있다.

또한 이 보증금은 테넌트의 마지막 달의 렌트로 대신 사용할 수 없으며, 렌트가 끝난 후 21일 이내에, 파손된 수리비와 물품 구매비 등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잔액을 테넌트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파손과 손실 부분의 책임소재를 두고 항상 양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다. 이럴 땐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일을 진행해야 한다. 렌트 시에 고장, 수리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보자. 우선 렌트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테넌트의 정상적인 사용으로 파손되고 고장 나는 것은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Ordinary wear and tear)인 경우에는 테넌트의 잘못이 아니므로 집주인의 경우로 수리하고 교체해야 한다.

단, 하수관 막힘은 내부 부품의 파손과 나무 뿌리의 침투로 인해 막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 후에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용이라 할 지라도 모두 현재 사용자인 테넌트가 수리해야 한다.

테넌트가 알고 있는 청소회사에 청소를 시킨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 또다시 청소를 하게 되면 경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런 점을 최대한 잘 설명해 적절한 청소비를 나중에 테넌트의 보증금에서 한 번만 빼서 처리하도록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카페의 샴푸비용, 고장 난 전구 교체 비용, 창문의 블라인드 파손 등은 테넌트 보증금으로 차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벽의 페인트 터치업 비용은 책임 소재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다만 심한 낙서 같은 것이 없다면 그 비용을 테넌트에게 묻기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이다. 페인트 비용을 보증금에서 테넌트의 동의 없이 차감한 경우 불복할 수 있다. 테넌트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액재판으로 물고 가면 집주인이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사전에 테넌트에게, 거주 기간 부엌과 화장실 수도꼭지에서의 누수, 워터 히터의 누수, 변기의 펌프 고장, 차고 문이 작동 이상, 주방기구의 고장 등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을 발견 즉시 집주인에게 통보하여 그때그때 수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렌트가 종료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집주인과 테넌트 사이의 좋았던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렌트가 끝날 시기가 다가오면, 반드시 1달 정도 이전에 서로에게 통보해서 이사를 나갈 날짜를 정하고, 보통, 이사를 나가기 10일 전 정도쯤에 집주인은 에이전트를 동반하여 다시 그 집을 인스펙션하거나, 혹은 테넌트가 이사를 나간 후, 비어 있는 집을 양측의 에이전트가 함께 인스펙션하도록 하여 그 문제점을 서로가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해리정 한바다부동산 대표

상가 부동산 투자

안정적 임대 수익 보장 NNN 고려해야 시세 차익은 어렵지만, 관리 부담 적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올해에는 엔비디아나 테슬라와 같은 대형 주식의 상승률이 60%에 달할 정도로 주식 시장이 최고점에 달해 있다. 워런 버핏이 역대급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과 더불어 한 재정 전문가는 주식 시장의 하락기를 대비해서 부동산과 주식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나이와 성향에 따라 5%에서 30%를 부동산에 투자할 것을 권장한다. 현재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는 투자자라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보장되는 NNN 리스 소매 상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길 권한다.

그동안 남가주 지역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거주용 부동산은 높은 관리부담과 낮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팔 때 막대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투자의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2024년 마지막 분기에는 남가주 거주용 투자 부동산 시장에 바이어가 사라져 수많은 매물들이 쌓여 있는 상태이다. 경험 많은 부동산 관련 분야의 대부분이 당황해 할 정도로 본격적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2024년 11월 현재 특히 LA 한인타운 주변 사무실 인구 감소, 대형 아파트 공급 증가, 저소득층의 렌트 수요 증가, 높은 이자율, 팬데믹 이후 개인이 처리하기 까다로워진 세입자와의 관계, 비싼 관리비용 등의 이유로 거주용 유닛이 은퇴자금 확보를 위한 부동산 투자 대상이 되기 어려워졌다. LA 한인타운의 오피스 10곳 중 3곳이 비어 있는 등 사무실 임대 시장이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들어오는 수입 대비 아파트 판매 가격이 정점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매물보다 임대 수익이 낮고 건축된 지 오래된 건물이 매물로 시장에 많이 나오는 영향도 크다.

2028년 올림픽을 LA에서 개최한다는 호재도 과연 한인타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사두고 버티면 오른다는 시세차익의 전략이 더는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많은 기업과 젊은 중산층 인구가 집값이 싼 타주 이주가 진행되고 있고 렌트비가 비싸져 홈리스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 저가 아파트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등 렌트비 인상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

주거용 부동산과는 달리 리테일 상업 부동산 구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호기인 시점이다. 남가주에 위치한 대형 쇼핑센터 매물이 투자율이 8% 넘는 것도 보이고 요즘 미국에서 대체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지아에는 신축 리테일 상가 7%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 럭셔리 레스토랑과 마켓들은 10년에서 15년씩 리스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단독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며 100만 달러대부터 가격이 형성돼 있다.

리테일용 상업 부동산 구매를 위해서 11월 중순 현재 은행에 문의하시면 대략 이자율은 6.5% 정도일 것이다. 후반이 들어서 투자 매물의 투자율이 이자율보다 낮은 7%대 매물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가격이 이자율보다 높아지는 상황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

중산층 인구 감소세가 여전한 남가주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유닛보다는 매월 꾸준한 수입이 보장된 안정된 세입자가 NNN 리스 계약되어 관리가 거의 없는 상가부동산이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다.

2025년 부동산 전망

트럼프 임기 2기가 시작되는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

임기 1기(2017년~2021년) 대선 이후 주택 부동산 시장의 과제는 '낮은 금리'였다. 금융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 대출 접근성이 높아져 수요가 증가했으며, 특히 저금리 기조는 주택구매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트럼프 임기 2기의 주요 정책은 '기업 살리기'이다. 이를 위한 중요 정책 중 하나인 '금리 인하'가 필요해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밝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주택 거래 감소에도 매물이 부

족해 여전히 셀러스 마켓처럼 흘러가고 있다. 올해 부동산 약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웠는데 내년 주택 시장도 불확실성 마켓이다. 다만 올해보다 주택 구입 여건은 다소 개선될 듯하다.

신규 주택 건설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주택 재고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많은 주택소유자가 저금리에 고정되어 있어 주택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모기지 금리가 6% 아래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기존 주택 공급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최근 재고 매물 수준이 2020년 가을 이후 가장 적은 격차를 보인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신호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모기지 금리가 8% 육박하다가 올해 9월 기준으로 6% 초반

으로 떨어졌던 30년 고정 이자율이 5주 이상 넘게 연속 상승해 결국 7% 업다운으로 변하며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모두가 기다리는 내년 모기지 이자율 하락과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와 공급을 불러 주는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는 듯하다.

다만 몇 년 전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모기지 이자율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걸 알기에, 현재 수준보다는 나아질 것을 확신하며 대선 이후 부동산 전망에 와일드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한 해 주택 거래가 그 어느 해보다 한산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여전히 많은 바이어가 내년 이자율 하락을 기다리며 시장 상황을 관망 중인 것이 주택 거래 하락 원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별 주택 상승과 하락세도 매물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내년에 주택 가격 하락 변동 가능성도 크게 작아 보이고, 상승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도 생각되며, 대부분이 마켓 가격 변동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국주택건설협회(NAHB) 주택시장지수(HMI) 조사에서 건설업체 담당자 절반 이상이 2025년에는 새 집도 많아져서 매물이 적더라도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내년 2025년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인 바이어는 지금부터 주택 구입을 철저히 준비해서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

윤순아·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명예부사장

Realty 1 Maryland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 for Realty 1 Maryland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phone (410-696-2268), and fax (866-531-7541). Features a grid of property listings with status (SOLD, UNDER CONTRACT, COMING SOON), price, and location. Also includes a 'RENT' section with monthly rental prices for various areas like Ellicott City, Sliver Spring, Germantown, Hanover, and Glen Burnie. Contact info for Realtor Stacy Yang (443-668-0453) is provided.



www.ebluu.com



30년의 여정을 기념하며,
특별한 혜택과 이벤트로 보답합니다!

**지금 가입하면
12개월 동안
월 사용료가
무료*입니다!**

프로모션 기간: 10/1/24 - 3/31/25



bluu™ Point+



헤어 및 네일살롱



세탁소



럭셔리 레스토랑



푸드 트럭



택시 서비스



배달 서비스

주문부터 결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이동성 - 작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어디서나 쉽게 휴대할 수 있어, 고객이 있는 곳에 직접 결제가 가능합니다.



편리한 결제 - 다양한 결제 수단 (신용카드, 데빗카드, 모바일 결제 등)을 지원하여, 고객에게 편리한 결제 옵션을 제공합니다.



신속한 처리 - 빠른 결제 처리가 가능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입니다.



비용 절감 - 전통적인 POS 시스템에 비해 설치 및 유지 비용이 낮아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Bluu, Inc 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이력서 제출: hr@ebluu.com



bluu™ Point+

*Merchant Processing Account Required. Additional Fees, Terms and Conditions Apply.
최저 수수료는 가게 매출에 따라 책정이 되며, 실제 ticket size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nual PCI Fee and Payment Module Fee 별도.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6
Annandale, VA 22003

directsales@ebluu.com

Virginia Office | 판매문의

703.750.1707

한국은 좁다, 이제는 미국...윤이나 "LPGA도 문제없죠"

KLPGA 3관왕, 한국내 1인자 등극 미국 투어 입문 시험 Q시리즈 출전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3관왕을 차지한 윤이나(21)가 다음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을까.

LPGA 투어 입문 시험인 Q-시리즈 최종전이 6일(한국시간) 앨라배마주 모빌의 매그놀리아 그로브 골프장에서 개막한다. 닷새 동안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크로스스와 폴스 두 개 코스에서 열린다. 먼저 나흘간 두 코스에서 2라운드씩 총 4라운드를 치른 뒤 크로스스 코스에서 마지막 5라운드를 진행하는 일정이다.

LPGA 투어의 등용문인 Q-시리즈는 Q-스쿨(출전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퀘리파이밍 테스트)의 최종 관문이다. 내년도 풀시드가 없는 선수들끼리 샷 대결을 펼치는 '생존 전쟁'이다. 앞서 327명이 출전해 진행한 1차 시험에서 모두 100명(공동 95위까지)을 추려냈다. 여기에 2부투어 상위권 선수들과 여자골프 세계랭킹 중위권 선수들을 더해 치른 2차 고시에선 43명이 합격해 최종전 출전 자격을 얻었다.

마지막 관문인 Q-시리즈 최종전



올 시즌 KLPGA 투어 3관왕을 차지한 국내 최강자 윤이나가 LPGA 투어 입문 시험인 Q-시리즈 최종전에 출전한다. 6일부터 닷새 동안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서는 공동 25위 안에 들어야 다음 시즌 풀시드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은 이들 43명과 올 시즌 LPGA 투어 CME글로벌 포인트 100위 밖으로 밀려 내년 시드를 놓친 선수들, 그리고 세계랭킹 75위 이내 선수들을 포함해 모두 100여명이 출전한다. 여기에서 공동 25위 안으로 들면 내년도 풀시드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순위별로 조건부 시드가 주어진다. 과거에는 최종전을 8라운드까지 치른 적도 있지만, 점차 규모가 줄어들어 올해부터는 5라운드

로 진행된다. 윤이나는 이번 Q-시리즈에서 가장 주목 받는 도전자 중 한 명이다. 올 시즌 KLPGA 투어에서 우승 1회와 준우승 4차례, 톱10 진입 14번 등 꾸준한 성적을 내 대상과 상금왕, 평균타수상을 휩쓸었다. 2년 전 오구 플레이와 스코어카드 오기 논란으로 선수 생명이 위기를 맞았지만, 올해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자마자 KLPGA 투어의 1인자

로 자리매김했다. 세계랭킹 30위 안팎을 꾸준히 지키며 최종전 직행권을 얻은 윤이나는 아직 LPGA 투어 진출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다. 일단 Q-시리즈를 치른 뒤 추후에 미국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전에서 풀시드를 확보한다면 곧장 LPGA 투어에 도전장을 낼 가능성이 크다. 해외 진출이 점점

지는 윤이나 앞에는 또 다른 이슈도 있다. 바로 메인 스폰서 계약이다. 올 시즌을 끝으로 하이트진로와 계약이 끝나는 윤이나는 새 후원을 찾고 있다. 현재 하이트진로와 우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추후 해외 기업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골프계는 고진영(29)의 메인 스폰서십을 맡고 있는 필리핀의 카지노 기업 솔레어가 윤이나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진영 역시 2019년까지는 윤이나처럼 하이트진로 모자를 썼지만, 몸값이 올라가자 이듬해부터 솔레어로 후원사를 바꿨고, 현재까지 동행하고 있다. 최근 윤이나가 오랜 기간 동행한 기존 소속사(크라우닝)를 떠나 고진영의 에이전시(세마스포츠마케팅)와 손을 잡은 것 또한 솔레어와의 계약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역대 Q-시리즈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한국 선수들은 1997년 박세리(47)를 시작으로 2022년 유해란(23)까지 모두 7명이 있었다. 윤이나는 지난달 27일 열린 KLPGA 대상 시상식에서 "미국이란 더 큰 무대에서 나를 시험해보고 싶다. Q-시리즈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합격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고봉준 기자**

모든 걸 가진 유일한 박사는 왜 50세에 독립투사가 됐을까

뮤지컬 '스윙데이즈' 주연 민우혁 1945년 OSS 첩보프로젝트 다뤘

1945년 일제 패망을 앞당기기 위해 미국 첩보국 OSS(중앙정보국 CIA의 전신)가 극비리에 추진한 '넵코 프로젝트'에 한국인 19명이 투입됐다. 자신의 신분과 삶을 모두 내려놓고 정보수집 및 첩보활동에 뛰어들어 이들 중에는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1895~1971) 박사도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교육자였던 50세의 유일한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총을 들었다.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개막한 '스윙데이즈'는 넵코 프로젝트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뮤지컬이다. 영화 '실미도'의 김희재 작가가 첫 뮤지컬에 도전했다. 유일한 박사는 민우혁·유준상·신성록이 연기한다. 지난달 18일 충무아트센터에서 리허설

을 준비 중인 민우혁(41)을 만났다. 그는 "뮤지컬 '영웅'에서 안중근 연기를 하고 있을 때 '스윙데이즈' 제안을 받았다.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 고민하던 중 대본을 받았는데 생각했던 것과 다르더라. 관객들도 반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했다"고 말했다. -작품의 어떤 부분에 끌렸나.

"독립운동 이야기라고 하면 어둡고 무거운 느낌인데, '스윙데이즈'는 위트가 있다. 그 시대 경성의 감성과 낭만도 잘 살렸다."

-위인을 연기하는 게 어렵진 않나.

"실존 인물을 표현하는 것은 늘 부담스럽다. 어떤 영웅적인 인물이라도 인간적 고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표현해서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들고 싶었다."

-유일한 박사를 어떻게 해석했나. "한 마디로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

다. 미국에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한국에 살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사업으로 번 돈을 독립 자금으로 쓰고 스스로 첩보국에 들어가며 가족과도 헤어졌다. 대본을 볼 때마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어떤 그릇을 가진 사람이갈래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 날도 있다. 여전히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민우혁이 꼽는 명장면은.

"2막 중반에 아내 메리와 이별하는 장면이 있다. 메리는 유일한이 왜 조선에 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 조선으로 떠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도 쿨하게 보내준다. 그때 죽지 말고 내가 있는 일상으로 돌아오라며 돌이 두 엿곡을 부른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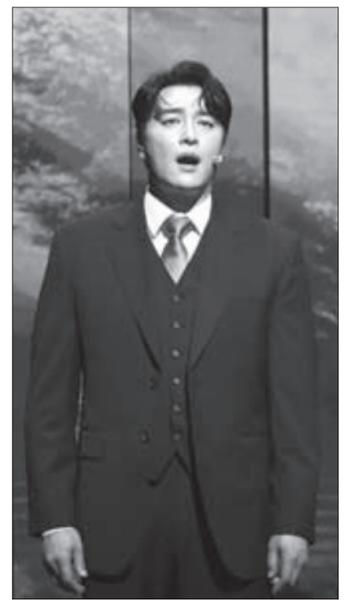
-잔잔한 넘버가 많아 신선했다.

"클라이맥스에서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내면서 고음으로 강렬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뮤지컬의 성공 공식이 돼 버렸는데, 이 작품은 비교적 잔잔하다. 배우들끼리 '김동률 노래 같다'고 농담했을 정도다. 그런데 잔잔하게 부르다 보니 가사가 더 또렷이 들린다."

-드라마 '닥터 차정숙'(2023, JTBC)으로 이름을 알린 후에도 뮤지컬을 꾸준히 했다. TV보다 무대가 더 잘 맞나.

"매체 연기에서도 좋은 경험을 많이 했다. 하지만 '내가 살아 있구나' 느끼는 순간은 무대 위에 있더라."

작품 속 실화의 비중은 약 20%다. 유일한 박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귀국해 넵코 프로젝트에 합류했다는 큰 틀은 실화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모두 픽션이다. 공연은 내년 2월 9일까지 계속된다. **홍지유 기자**



민우혁은 "초연인 만큼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 기쁨이 크다"고 했다. [사진 올댓스토리]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바른 기사만 담겠습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o give up (something); 포기하다 (Alice is talking to her husband Charlie ...) (앨리스가 남편 찰리와 얘기한다 ...)

Alice: So what did the doctor say?
앨리스: 그래 의사가 뭐라고 해?
Charlie: He said I have to give up a lot of things,
찰리: 포기해야 되는게 많대.
Alice: Like what?
앨리스: 어떤 것?
Charlie: I have to give up red meat salt and sweets,
찰리: 붉은색 고기하고 짠것, 단것.
Alice: Did he say anything about exercise?

앨리스: 운동 얘기는 없고?
Charlie: Yes, I have to put in at least one hour of exercise three times a week,
찰리: 응. 일주일에 세 번씩 적어도 한 시간은 운동해야돼.
Alice: Can you do it?
앨리스: 할 수 있겠어?
Charlie: I have no choice,
찰리: 별 다른 도리가 없어.

Alice: I'll help you, We'll work out together.
앨리스: 내가 도와줄께. 운동 같이 하자.
Charlie: Thanks, That would help.
찰리: 고마워. 그러면 도움이 될 거야.
Alice: Do you want to start tomorrow?
앨리스: 내일부터 할까?
Charlie: No, let's start today,
찰리: 아니 오늘 시작하자.
Alice: Okay. That's a good idea.

앨리스: 알았어. 그게 좋겠어.
기억할만한 표현
put in (time): 시간을 들이다
She put in five hours working on the report on Saturday.
(개는 리포트 쓰는데 토요일에 다섯 시간을 들었습니다.)

날말퀴즈

Grid for the word puzzle with numbers 1-29.

가로열쇠

(1) 봄이 시작된다고 하는 날을 맞이하여 길운을 기원하며 벽이나 문짝에 써 붙인다. (4) 나라에 혼란 따위가 없어 백성들이 편안히 지내는 시대. □평□□ (6) 완전히 잠이 들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어렴풋한 상태 (8) 경기에 참여하려 나감. 강 선수는 경기 ~ 때마다 높은 방어율을 기록했다 (10) 감미롭고 감상적인 분위기. 정열과 ~이 넘치던 학창 시절 (11)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물건 (12) 저절로 생겨난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따위의 존재.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 사람은 ~ 보호, ~은 사람 보호 (14) 죽기를 각오하고 쓰는 힘. ~을 다해 싸우다 (16)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19) 형견이나 쇠 따위로 길게 만든 자 (21) 냇물이 넘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둑 (23) 가늘게 뜯은 눈 (24)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살았던 삶 (25) 걸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 (28) 투수가 타격을 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포볼을 만드는 일. 투수 포수가 일어난 채 공 네 개를 주고받죠. □의□□ (29) 특별한 붓으로 크게 씌. 어떤 기사에 큰 비중을 두어 다룸

세로열쇠

(1) 성공하여 세상에 이름을 떨침. □신□□ (2) 전왕의 왕비이며 현왕의 어머니. 왕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가 수렴정정을 하게 되었다 (3) 좋은 징조의 꿈 (4) 아이를 벨 것이라고 알려 주는 꿈 (5)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림.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 □기□□ (7) 동양화에서, 매화·난초·국화·대나무를 그린 그림. 고결함을 상징으로 하는 문인화의 대표적 소재이다 (9) 가는 대나무로 된 긴 담뱃대 (13) 육지와 면한 바다·강·호수 따위의 물가. ~ 부두 (15) 근육의 기초가 되는 희고 질긴 살의 줄. 그 아이는 목에 굵은 ~이 보일 정도로 노래를 열심히 불렀다 (17) 증상에 따라 약을 짓는 방법을 적은 종이 (18) 사실 그대로 고향. 내가 지은 죄를 어서 ~하여라. 이□□□ (20) 자로 끊어 파는 피륙의 팔고 남은 조각 (22) 하늘에서 미리 정해 준 것처럼 꼭 맞는 부부로서의 짝 (25) 그림의 뒷면이나 데투리에 종이 또는 천을 발라서 꾸미는 일 (26) 종이, 피륙, 가죽 따위로 만든 큰 자루. 새 술은 새 ~에 담아야 한다 (27) 자매의 남편 사이나 형제의 아내 사이

스도쿠

9x9 Sudoku grid with some numbers filled in.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Completed 9x9 Sudoku grid.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Subscription form for Washington Korea Daily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card info, and payment details.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웅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할인!!



갑자기 확 오른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시죠?
그런데도 다른 보험을 알아 보시기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보험료를 절감하시려면, 한 해마다 꼭 “비교” 해 보시고
보험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정성웅 보험

{ 나에게 꼭 맞는 알뜰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확인하세요~! }



정성웅 보험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바다프렌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지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대일 **703-354-1515**
 2층 소품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12월 겨울맞이 Special SALE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정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온열 지압침대
 백들이 온열지압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무이자 할부
 최고 **36** 개월



↑ 체온 1C 상승하면 ↑ 면역력 40% 상승

GH 온열 지압 침대의 특징

102개의 지압봉 + 2 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 온열 지압 카우치



▶ 온열 지압 상감 평상

본토 휴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황토**로 만들어진 '누드 휴판'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2,900 \$2,300 \$3,000 \$2,500 본토휴침대 100% 생황토



장운정의 휴표 휴 매트 침대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드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슬림핏질 찜질효과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휴표 휴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휴침대

휴표 휴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퀵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 후면: 고급대(竹) 자리
-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던 지정 대리점

월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리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tax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 3 간단 편리한 작동
-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7kg을 채우고 찜질할 때만~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닥터큐**

몸속까지 시원한 수직 지압 마사지!

Made in KOREA

1/4마력 강력모터의 파워 발목펌프 자동운동기의 특징

하루에 5분만 사용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 당뇨, 혈관질환 개선효과, 오십견, 관절염 등 완화 효과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EYE MASSAGER

누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뢰기기

피로한 눈, 뻑뻑한 눈곱감, 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 충혈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찜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129

★ **히트상품** ★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딥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뀌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회몽 매트

2020년 최우수 제품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크세사 일월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12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WE ARE HIRING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LÖTTEmarket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우동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 위치 : 메릴랜드 제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 업무 :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 등)
- 시간 : 주 32 ~ 48시간 (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 업무 : 현장 직원 관리 및 입출고 관리
- 시간 : 주 48 ~ 52시간
- 유경험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 그래픽 디자이너/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 Full Time (Mon.~Fri. : 7:30AM - 5:00PM)
■근무지 : 승원 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
으로 Resume와 포토폴리오 첨부

LÖ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틸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금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 ▶연매상 100만+25만
- ▶급하게 처리원함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AGENT 환영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정선화 보험

건강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즐거움건강복지센터에서 주방장, 주방보조, RN 간호사, 리셉션니스트, 액티비티선생님을 구합니다. 볼티모어 메릴랜드지역
410-916-6362

메릴랜드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사무보조:이중언어가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콜롬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걸려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속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메릴랜드 JESSUP-화장품출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볼티모어 케이스톤스빌 지역 베이글샵에서 주 3-4일 7시-3시까지 도와 주실분 연락주세요 443-797-3938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식당 목요일과 토요일 또는 하루 일하실 서버 구합니다. 식당 Open hour 11:00 AM -8:00 PM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240-678-5395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아웃 화, 수, 목, 같이 일하실분 구함 남녀 전부 환영 (문자요망) 443-991-9331

▶▶엘리컷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컷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캐슈어/경험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사시 & Fried Chicken 파트/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이미용/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속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게이더스버그 MD에서 남/여 머리하시는분 구합니다. 301-926-3638 301-538-4246(Soo)

▶▶MD 아류델빌 샵펜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싱글/타운 /콘도 방렌트

▶▶볼튼스빌 MD (엘리컷시티에서 18분거리) 단독주택 2층방2/부엌/화장실 1 1/2/택 \$1,700 1층방1/부엌/화장실/샤워/출입문 별도 \$700 443-983-8100

▶▶워튼 도서관 한아름 근처/메트로근처 싱글홈방1/아파트식 뒷문 별도/인터넷/직장인환영 301-655-3248

지하방 렌트 워크아웃 인터넷 유모 가구일체 교통편리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443-631-7866

우드스탁 반지하 단독. 화장실. 침대. 출입문별도. 금연. MD 443 983 1880

저먼타운 방1 욕실별도, 금연자 깨쓰한 콘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컷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홀 2층방/유모/가구일체/교통편리/남자분 원함 443-631-7866

▶▶엘리컷시티 타운홈 렌트 메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가 가까움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근처 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모,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철체세 통용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거실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사업채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회계사 사무실에서 파트/풀타임 직원 구합니다. 이력서 k54672@gmail.com

▶▶1. 세라미스트 첫 3개월 연봉 12만 2. CAD/CAM 경력자 첫 3개월 연봉 6만 703-597-0955 (문자요망)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케어피플 홈헬스 Billing Coordinator (센터빌) 한국어, 영어 가능하신분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1. LED Light 세일즈 2. Electrician 배우실분. 202-993-8870 (문자요망)

▶▶LORTON 헤어제품 수입 회사 세일링 창고에서 오전: 고객 오더 접수 오후: 노던 버지니아 지역 및 메트로 지역 담당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hnti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 회계사사무실에서 회계업무 하실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서 가능합니다 경력자 우대 합니다. Resume : skim@skimcpa.com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구매부 0명/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유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301-477-401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h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 (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급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 바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공인 회계사사무실(Annandale)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 채용 경험자 우대. 베네핏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Email: acct2014a@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명, 패킹/포장팀 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 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풀타임/파트타임 가능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표수집에 관심이신 분 연락 바랍니다!

우 표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오랜동안 수집 해 온 (한국, 미국, 여러나라 우표)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더 좋은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R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중앙일보

▶571-243-4251
센터빌,철크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급급, 센터빌/철크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슨톤/ 타이슨스)
경험자우대, Dentra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 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당/식품

▶▶새로 오픈한 치킨집
주방에서 한국 음식 하실분
Warrenton, VA 경력자 우대
703-717-2341

에난데일 치맥에서
Part time Server 구합니다.
571-352-4938
Chimc.va@gmail.com

▶에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셔,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셔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현돈 H-마트 인 만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스티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 - 543 - 2320

아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
레스 / 쿡하실분 구합니다.

이미용

301-938-4075 문자요망

▶▶텍사스도넛센터빌매니저보조구함(아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체방 기출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금,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철크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철크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에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이발소를 \$8만불 판매/하노버 매릴
랜드 앨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
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를 개조/ 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세탁/엘터레이션

▶▶로튼 세탁소 파트/풀타임 카운터
보실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3-599-5331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파/풀 타임(문자요망)
703 608 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통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2006 Toyota Sienna
20만6천마일, 703-825-0852(문자)

포드 광통밴 냉장됨,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너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철크리 자동차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너,준메케너,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에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빙난방
L&B Universal, Inc. (빙·난방/덕트
클리닝)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보유-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기타/구인/청소

▶▶가사도우실분을 찾습니다
:음식 잘하시는 분
맥크린(VA) 지역 가정집
주 5일 혹은 3일: 12시-19:30분
240-994-8456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풀타임 내일을 구합니다!
703-822-7810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방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버크 테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박스배달요원을 구합니다.
에난데일.운전가능자
571-242-3736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훔알아서해주시분
703-473-6022.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필그림유치원교사 모집
토틀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 -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에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합니다.
(알링턴 2마일, DC 7마일). 3층, 7베드룸과
7베스전체 7500+sf의 아름다운 집!
.크레딧 없는 분도 가능! 월 \$7,495.
703-244-3453

▶▶싱글홈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슈어,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lcony,
밝고 환한 집. 8805.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장3.5,
좋은 로케이션, 잘관리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장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센터빌 롯데근처 콘도 방2, 욕
실 1.5 즉시 입주 가능/깨끗하고 위
치 좋음. \$2,150
301-466-1646/301-529-2175

▶▶SALE 콘도 아파트 2층
방2/마루/전철역/좋은 학교
703-336-3283

▶▶에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까움. 교통편리.
703-477-3114.

▶▶아난데일 H마트 옆. 방1, 가구완비,
남여 직장인/유פו/\$8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장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움.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에난데일 콘도. 방1, 화장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사무직/편집/디자이너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쓰이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방렌트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703-678-7833

애난데일 고급 주택 내의 단독 화장실 딸린 큰 방 렌트. DC 까지 7 마일, 집앞에 버스 스타프 있음
703-244-3453

▶▶ 페어팩스 웨그망 걸어서 5분 카펫 없음, 마루바닥. 개인 방, 화장실, 보안보장 빛 잘 들어오는 모던 스타일 콘도 \$1150/유틸리티 포함 아침 저녁으로 비어있음 / 여자분만
571-664-9905

센터빌 유포, 세탁기, 취사가능, 아침부터 저녁 8까지 비어있음. 넓고 햇빛 잘 들고, 깨끗함. 작은방, 큰방 입주가능. 여자분만.
571-664-9905

▶▶ 센터빌타운하우스/화장실/파킹장 딸린 집 / 2층 큰방
917-403-4388

애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방1/화실/샤워/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703-629-6275

▶▶ 애난데일 H마트 근처 타운홈 인터넷, 가구/냉장고/욕실별도/직장인/금연자 환영
571-230-7121
301-633-4232

▶▶ 지하방1/웍아웃/샤워/간단취사가능/여자/커피환영/페어팩스 머릴필드 지역
571-229-7124

▶▶ 애난데일 콘도 방1/화1/식사/라이드가가능/K마트 근처
703-362-5425
703-772-5622

센터빌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 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애난데일 한강뒤방1/화1 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홀디포워 방렌트 주차장 넉넉, 출입문 별도
571-237-3411

▶▶ 애난데일 아파트/한강뒤/여자분 원함 /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 애난데일 H마트 옆 방1/여자분 환영
703-505-5698

▶▶ 방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 아래층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음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이 좋음 워싱턴 실버라인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처
703-307-2473

▶▶ 교통 편리한 애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 센터빌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 703-489-6926

▶▶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 조용한 침실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 편리함 여자분 원함.
571-345-8879

▶▶ 애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 애난데일 한강식당뒤 싱글홈 방 렌트 돌침대/가구/화장실/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 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 싱글홈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워아웃방 2, 거실 화장실 풀키친, 워셔, 드라이어
703-898-3838

▶▶ 애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전체 방1/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 애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1/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 703-470-5238

1. 애난데일 콘도 렌트 \$1,800 방1, 화1 세탁기, 전부 리모델링, 마루, 환한 3층 1,000sqft
2. 옥통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릅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3.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 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 571-239-6054

사무실/점포 렌트

센터빌 던킨 뒤 오피스콘도 - 렌트 2층 1200sqft \$2,100, 방 1 / 화1 / 큰 오피스 사무공간
▶▶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 (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 렌트 \$1,900 Springfield 애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 집.
▶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 4, 화 4, 펜리 라램블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 2½, 1,612sq.ft.,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 703-477-3114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파울,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kout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 703-483-0505

부동산/상업용 매매

페어팩스 싱글 \$795,000 방 4, 화 3, 전부 리모델링 마루, Twinbrook shopping
▶▶ 571-239-6054

▶▶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 ▶▶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파울,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 703-483-0505

▶▶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바이어 Only)
571-242-3736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통역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차업인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 수학 개인과의 합니다. (면대면 및 zoom)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 우표수집한것입니다. 우표수집하시는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 귀국 관계로 가사업체를 헐값이나 무료로 드립니다. 허백련, 청천등 고미술 품과 돌침대 가재도구 다수의 그림과 수백권의 책 무료로 드립니다
443 799 2124

▶▶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 (3시 이후 전화요망)

골동품 이조기구 전문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 703-395-0050

레드론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Out), 텍 메인 터너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 410-370-4229

▶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버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터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 냉난방 TEACHER
▶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 히터
▶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롤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 301-572-2786 / 403-953-0801

보석

▶▶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세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삼무,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폴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방 물새는 것
▶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 703-550-2424

조양 운송 -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창고 보관
▶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 홈 Mr. 박
703-434-2810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항탱크 등 교환·수리
▶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B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밥-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 703-340-5858 (VA) / 443-980-5858 (MD)

▶▶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런)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 703-582-7757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 703-894-7200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목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소독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건축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수도꼭지 교체 ◆루핑수리/거러교체
 ◆싱크/디스포저 ◆사이드 리페어/창문
 ◆워터히터/물새는것 ◆데크 수리
 ◆하수막힘/변기교체 ◆드라이얼/페인트
 ◆썩펌프 교체 ◆파워워시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킹스펙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 /Vinyl)
 ●LVT (Luxury Vinyl Tile)
 ●VCT (Vinyl Commercial Tile)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애틀랜타 기타 지역

기타 구인 매매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홀트 식물원 각종 한국과일 나무와 씨앗 / 각종모종 (909)625-4577 11602 Ramona Ave. Chino, CA 91710
일본식당 구인 *히바찌 셰프 0명 유경험자 칩식제공 (걸어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알라스카식당 매매 건강상, 아주오래된식당 연매상 \$80만 대지 14,000sf. 가격 문의바람 (907)545-0152
 이민생활의 나침반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덕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헛신분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충 1-213-703-8809, papa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50**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홍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2024 야생 햇산삼을 소비자와 함께 공동 구매합니다.
야생 햇산삼 공동구매
심마니 가격 450g 한/정/판/매
지금지긋한 모든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소비자 가격	중간 마진	심마니 가격
중(M)	\$3,500	→ \$1,700	→ \$1,200
대(L)	\$4,800	→ \$2,400	→ \$1,400
특대(XL)	\$5,800	→ \$2,900	→ \$1,800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게재??!!**
미주 전지역의 광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The JoongAng Chicago, New York, Washington DC, Atlanta, Los Angeles

신선농원 건대추 판매 11월 5일부터!!
좋은 건대추를 농장에서 직주문 하세요!
전화주문 714.833.4988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70/10LBS·1BOX \$14/lb 대추	\$140/10LBS·1BOX \$11/lb 대추	\$100/10LBS·1BOX \$7/lb 대추

 * 하와이, 알래스카 추가운송요금 * \$7/lb 대추는 \$11/lb와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작습니다.
농장방문시 전화예약 필수
 * 210번 Freeway 이용하면 제일 편리함 (State st.에서 내려서 북쪽으로 2분거리)

독점 CENTREVILLE 싱글홈

방 5, 화장실 5, 1/2 5,908SqFt
5.38Acres 에 자리잡은 멋진
캠브릿지 스타일 싱글홈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근접

\$1,799,000



Contract

독점 WOODBRIDGE 싱글홈

2 Car Garage, Formal Model House 방5/화3/1/2,
탁트인 강과 숲이 보이는 경치 Walkout Basement.
첫주인이 잘관리한 넓고 밝고 환한집

\$659,900



Contract

독점 FAIRFAX 타운홈

코스트코 근처, 2005년도 2 차고,
방3개, 화장실3 1/2, 3,220sq
잘 관리된 밝고 환한집

\$800,000



Sold

독점 MANASSAS 싱글홈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주택 방3/화2/1,755sf
New Floor, Updated Bath & Kitchen,
Large Deck & Fence. "NO HOA"

\$540,000



Sold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